

한국문학치료학회 제139회 학술대회

- * 일시 : 2015년 5월 30일(토) 13시 30분~18시 10분
- * 장소 :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강의동 303호
- * 일정 :

1. 회원 등록(13:30-14:00)

2. 개회식(14:00-14:10)

사회 : 강미정(건국대인문학연구원)

학회장 인사

3. 발표 및 토론(14:10-17:30)

사회 : 강미정(건국대 인문학연구원)

발표 1 (14:10-15:40) :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의 관점에서 본 한국 신화의 서사 연구

좌장 : 서영숙(한남대)

발표 : 조홍윤(건국대)

토론 : 윤준섭(서울대)

중간휴식 (15:40-15:50)

발표 2 (15:50-17:20) : Inner Child를 활용한 자기서사 탐색과 재구성의 글쓰기

좌장 : 손석춘(건국대)

발표 : 김영희(연세대)

토론 : 조은상(건국대)

중간휴식 (17:20-17:30)

발표 3 (17:30-18:00) : 문학치료 관련 활동 보고

발표 : 황혜진(건국대)

4. 연구윤리 안내(18:00~18:10)

사회 : 강미정(건국대 인문학연구원)

5. 폐회(18:10)

사회 : 강미정(건국대 인문학연구원)

〈목 차〉

1. 서론
2. 신화의 서사를 통한 콤플렉스 연구의 가능성
3. 콤플렉스 서사로서의 한국 신화 분석
 -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 <숙영랑·앵연랑신가>
- 3.1. 거북이남생이의 콤플렉스 구조
- 3.2. 거북이남생이의 콤플렉스 극복 과정
4. 한국 신화의 서사체계를 통한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의 원리
5. 현실의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에 대한 한국 신화 서사의 적용
6. 결론

1. 서론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콤플렉스’이다. 지인들과의 일상적 대화 속에서, TV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내뱉는 말 속에서, 연예프로그램의 재미나는 농담 속에서도, 심지어는 뉴스를 보도하는 앵커의 보도문에서까지 하루에 몇 번 이상은 이 ‘콤플렉스’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다. 현대인들의 일상을 점령하다시피 한 인터넷 공간을 예로 들자면, 하루치 인터넷 기사의 한 꼭지를 차지하는 헤드라인 중 하나 이상이 개인 혹은 사회의 ‘콤플렉스’를 언급하고 있다. 콤플렉스가 일상화된 사회, ‘콤플렉스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단편적인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이러한 예를 통해서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콤플렉스의 문제로 인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심각성을 짐작할 만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실 속에서 문학연구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문학의 가치가 교훈성에 있는가, 흥미유발에 있는가’ 하는 고루한 논쟁의 차원을 벗어난 이야기이다.¹⁾ 문학의 가치라는 것이, 교훈으로든 즐거움으로든 당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있다면, ‘콤플렉스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

1) “문학의 본래적 기능은 쾌락인가? 아니면 교훈인가?.....그러나 문학은 쾌락만고 교훈만도 아니다. 쾌락을 주목하면서 척결하고자 할 때마다 교훈에 주목한 논박을 잠재우지는 못했으며, 교훈을 들어 신앙하고자 할 때마다 쾌락에 중점을 둔 논박을 견뎌내기 힘들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무엇인가? 당연한 일이지만 문학은 쾌락이면서 동시에 교훈이다.”

정운채, 「한국고전문학과 문학치료」, 『조선학보』 제183집, 조선학회, 2002, 40면.

대인에게 필요한 문학이란 그들의 정신적 요구에 답할 수 있을 만한-콤플렉스로 인한 고통의 문제에 답할 수 있을 만한 내질을 지닌 것이어야 할 것이다.²⁾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문학연구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지향점이다.

이러한 연구의 시작점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문학을 통해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를 구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정운채는 문학작품에 인간의 억눌린 욕망이 소망충족적(所望充足的)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양상을 밝혀, 문학의 본래적 기능이 인간의 심리적인 장애를 증상으로 드러내고 치료하는 것이라 주장한바 있다.³⁾ 이러한 발견은 문학작품의 형성에 관계되는 메커니즘이 프로이트(S. Freud)의 정신분석에서 논의된 바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 형성과정과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에 대해 문학연구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적합한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주목할 것은 신화의 원형성이다. 정신분석학의 성립 과정에서 일축을 담당한 바 있는 칼 융(Carl Gustav Jung)은, 신화의 형상이 인간 무의식의 집단적 원형(原型, archetype)을 표상한다는 점을 지적 한 바 있다.⁴⁾ 따라서 심층적 인간 정신의 원형을 풍부하게 함축하고 있는 신화 서사의 분석을 통하여,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현대인의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신분석학 분야에서 논의되는 콤플렉스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신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화가 함유하는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을 통해 콤플렉스 문제를 논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융은, 콤플렉스의 형성 과정에 작용하는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는 개인적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콤플렉스가⁵⁾,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을 토대로 하여 구축된다고 본다.⁶⁾ 예를 들어 한 인간이 자신의 어머니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가 지니고 있는 집단적 모성의 원형이 그의 어머니 체험과 결합하여 개인적인 모성 콤플렉스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⁷⁾ 이처럼 콤플렉스는 인류적 경험에 의한 여러 원형의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개인적 경험이 결합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⁸⁾ 그렇다면 개인적인 콤플렉스의 문제라고 해도 집단적 원형의 문제와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형성 원리상 어느 정도 보편적인 성격

2) “당대라는 조건은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그리고 삶 자체가 그러한 영향을 받으므로 학문 또한 당대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난날의 경험이 잘 말해 주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는 학문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당대의 도전 앞에 직면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옛날과 같지 않다는 인식을 넘어서서 학문에 영향을 주는 현대 사회라는 환경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김대행, 「현대 사회와 구비문학 연구」, 한국구비문학회 편, 『구비문학 연구의 길찾기』, 박이정, 2003, 12면.

3) 정운채, 앞의 논문, 59면.

4) C.G.Jung, 한국용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원형과 무의식』, 숲, 2002, 108면.

5) 융은 특수한 정동을 통하여 관찰될 수 있는 콤플렉스를 ‘정감이 강조된 콤플렉스’로 표현하였으며, 이것이 오늘날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지적되는 콤플렉스이다. 그는 개인적 무의식의 내용이 주로 정감이 강조된 콤플렉스라고 지적하고 있는 바, 콤플렉스는 곧 개인적 무의식인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앞의 책, 106면.

6) 앞의 책, 105~106면.

7) 앞의 책, 201~206면.

8) C.G.Jung, *Problém de L’ame moderne*, Paris: Buchet/Chastel, 1976, pp.202-210.

을 떨 수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현대인이 직면하고 있는 콤플렉스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신화의 원형을 통한 콤플렉스 연구가 오히려 적절한 방안일 수 있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적 근거를 따지지 않더라도, 신화가 함유한 신성관념이 신화 전승집단의 심층적인 의식체계를 투영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⁹⁾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은, “신은 인간의 삶과 우주에 기능하는(개인의 육신과 자연에 기능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힘, 혹은 가치 체계의 화신(化身)이며, 신화는 인류 안에 있는 정신적 잠재력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한다.¹⁰⁾ 신화가 인류의 정신적 잠재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언술은, 곧 신화가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원형적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정신적 대응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삶을 운영하는 가운데 접하게 되는 정신적 고통의 문제, 콤플렉스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화의 서사 속에 원형적 문제의식과 그 해답이 녹아있으리라는 전제가 가능하다.

이때 그러한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 한국의 신화이다. 한국의 신화 서사는 주인공이 한계적 인간 존재로서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함으로써 완전한 존재성을 얻게 되는 과정이 그 주를 이룬다.¹¹⁾ 그러므로 그러한 신화들에는 인간이 삶의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콤플렉스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그 극복과 치유에 대한 원형적 인식들이 담겨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에 한국의 신화를 콤플렉스와 그 치유에 대한 서사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콤플렉스의 문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일찍이 체계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본 연구의 방향에 정확한 이정표가 되어줄 기존 연구의 부재가 아쉬운 실정이다. 그에 어느 정도 유사한 방법론과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정신분석학 및 심리학 이론을 통한 신화연구의 사례,¹²⁾ 서사치료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신화 연구의 사례가 있을 수 있다.¹³⁾ ‘신화’와 ‘정신’, ‘치유’를 키워

9)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385면.

10)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대담. 이윤기 역, 『신화의 힘』, 이끌리오, 2002, 61면.

11) 건국신화의 경우에는 왕으로의 좌정을 통해, 서사무가의 경우에는 신으로의 좌정을 통해 그러한 서사가 완성된다. 여기서 ‘왕’과 ‘신’이라는 최종적 존재태가 완전성을 상징한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신화는 한계적 존재인 인간 주인공의 존재적 완성을 이야기하며, 한계적 인간이 존재적 완전성을 얻어가는 길에 대한 정신적 깨달음이 한국 신화의 서사 속에 녹아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12) 이에 대한 연구로는 김광일, 「한국신화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韓國文化人類學』 제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69; 김난주, 「한국창조신화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이창재, 「제1부 환장, 네러티브 신화 : 동아시아 신화 해석을 위한 정신분석 관점 및 개념 고찰」, 『기호학연구』 제15집, 한국기호학회, 2004; 박현순, 「수로왕 탄생신화의 심리학적 분석-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7집, 한국심리학회, 2005; 김희진, 「신화해석을 통해 본 개성화 과정 : 융 분석심리학에 근거하여」, 『독서치료연구』 제2집, 한국독서치료학회, 2006; 유제상, 「원저 :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고찰한 창조신화 : “알”의 상징성 중심으로」, 『심성연구』 제27집, 한국분석심리학회, 2012; 윤혜신, 「어머니신을 낳은 신화적 주체의 시선과 표현 방식」, 『구비문학연구』 제37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3 등을 들 수 있겠다.

13) 이에 대한 연구로는 김희진,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치료과정고찰 : 융 심리학에 근거한 페르세포네 신화분석」, 『어문집』 제11집, 평택대학교, 1998; 신동훈, 「치유의 서사로서의 무속신화 - 그 문학치료학적 힘에 대한 단상」, 『문학치료연구』 제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김병주, 「여성신화 <세경본풀이>의 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집, 한국심리학회, 2010; 송지원, 「<프시케이야기>에 나타난 여성성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와 여대생 상담에서의 적용」, 『학생생활연구』 제24집, 서

드로 하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사례를 통하여 분명히 지시되는 연구의 방향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콤플렉스의 구조를 구명해낼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되, 콤플렉스의 구조를 드러냄에 있어 섬세한 서사의 국면을 놓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콤플렉스 구조를 구명함에 있어서 대립구조와 순차구조 분석을 통한 가장 기초적인 서사구조 분석을 통해 서사의 맥락과 주인공의 형상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은 한국의 신화 서사가 그 자체로 지니고 있는 치유적 성격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개별 신화 주인공의 사례를 통해 그에 부합하는 현실적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치유와 극복의 방법을 구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신화 서사가 지닌 치유적 성격, 그러한 성격을 담보하는 한국 신화의 원리까지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그러한 점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한국 신화의 원리와 그러한 원리를 통해 구현된 서사의 체계로서도 콤플렉스 일반의 문제에 대한 치유와 극복의 원리를 밝혀낼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방향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의 장으로 들어가 한국 신화가 지닌 정신적 치유의 힘을 만끽해보도록 한다.

2. 신화의 서사를 통한 콤플렉스 연구의 가능성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신화나 상징이 무엇에 응답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전해진 상징이나 신화의 의례는, 인류의 역사적 상황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의 한계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답한다.¹⁴⁾ 여기서 말하는 한계상황이란 거대한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의식이며, 이러한 한계상황의 발견과 인식이 신화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신화적 사유의 가장 근저에서 신화가 만들어지는 원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스스로에 대한 인간의 한계인식, 거대한 우주에 압도된 연약한 인간존재로서의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다.

신화의 생성에 작용하는 힘이 인간의 콤플렉스라고 한다면, 콤플렉스에 대한 인간의 원형적 인식이 신화의 형상에 녹아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신화를 통하여 인간의 콤플렉스를 구명할 수 있다고 하는 본 연구의 전제가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이 장에서는 구체적인 신화의 사례를 통하여 인간의 콤플렉스의 문제가 신화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대상은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리스·로마의 신화, 그 중에서도 세계의 시작과 신들의 탄생을 이야기함으로써 전체적인 신화 체계의 바탕을 구성하는 창세

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11; 박재인, 「<주몽신화>의 “유화”에 대한 복한의 관점과 “양육”의 덕분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고찰」, 『겨레어문학』 49집, 겨레어문학회, 2012; 이은희, 「무속신화의 문학치료적 활용 가능성 연구: 부모에 대한 지나친 의존 문제 해결을 위한 <세경본풀이>의 활용방안」,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7집,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3 등이 있다.

14)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역, 『이미지와 상징』, 까치, 1998, 40면.

의 장면을 고찰함으로써 고대인들로 하여금 신화를 형성하고 노래하도록 만든 초기 인류 집단의 콤플렉스를 이해해 보도록 한다.

그리스·로마 신화의 체계에서, 세계의 시작과 신들의 탄생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자료는 헤시오도스의 『신통기(Theogonia)』¹⁵⁾인데, 그 내용을 보면 태초의 혼돈(混沌)인 카오스(Chaos)로부터 대지인 가이아(Gaia)가 탄생하며 세계가 시작되는 모습을 나타낸다.¹⁶⁾ 여기에서 세계의 시작태인 ‘혼돈’이란 말 그대로 세계에 대한 인간의 최초의 인식이 만들어낸 형상일 것이다. 태초의 인류에게 있어 그들의 터전이면서도 실제적인 위협의 대상이었던 세계는 거대한 미지와 공포의 대상이었다. 낮과 밤의 교차, 기후의 변화 등,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인간의 존재 조건을 변화시키는 세계가 종잡을 수 없는 혼돈 그 자체로 인간에게 인식되고 형상화 된 것이다. 이에 인류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혼돈의 대상으로서의 세계를, 이해 가능한 대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인식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자신들을 옥죄는 미지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에 따라 인간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그들이 딛고 서있는 ‘대지’의 존재를 최초의 신격으로 설정하고 숭배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신화는 그 형성과정에서부터 인류의 콤플렉스를 반영하고 있다. 압도적인 세계에 직면한 인간 존재의 나약함을 인식하고, 인류 정신의 억압기제로 작용하던 미지와 공포의 대상을 이해와 숭배의 대상으로 대치함으로써 최소한의 안정감을 얻기 위한 정신 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탄생한 최초의 신들이 자연 그대로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류를 움썅달썅 못하게 엮매었던 어둠의 존재가 에레보스(Erebus)와 닉스(Nix)의 신격을 갖게 되고, 그들로부터 인간의 생존 조건인 대기와 낮, 아이테르(Aether)와 헤메라(Hemera)가 탄생한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어둠은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 조건을 탄생시킨 숭배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별도의 형상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형상이 신격으로 좌정했다는 것은, 자연 그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었던 초기 인류의 정신 지형을 나타내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자신들의 정신적 억압기체인 자연 그 자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공포를 벗어나려 했던 인류의 정신이, 점점 그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망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그러한 욕망은 두 차례에 걸친 신들의 자리바꿈에 의해 1세대의 자연 신들이 그 자리를 내어주고, 2세대를 거쳐 3세대의 신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의 설정을 통해 드러난다.¹⁷⁾ 인류의 숭배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자연은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때때로 일어나는 자

15) 본고에서 참고한 『신통기』의 역본은 김원익에 의해 옮겨진 『신통기-그리스 신들의 계보』(민음사, 2003)이다. 역자가 대본으로 삼은 것은 독일 레클람(Reclam)사에서 출간된 그리스어와 독어 대역판 Hesiod, *Theogonie, Werke und tage*, Übersetzt und hrsg. von Otto Schönberger, Stuttgart, 1999와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그리스어와 영어 대역으로 출간된 헤시오도스 전집 Hesiod, *Homeric Hymns. Epic Cycle Homeric*, trans by Hugh G. Evelyn-White, Harvard University prees, 1936이다. 해당 자료는 그리스어 원문을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그 충실한 독어, 영어 대역판으로 평가되고 있는 대본을 번역한 것으로서 『신통기』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 데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16) 앞의 책, 29~30면.

17) 앞의 책, 32~34면.

연재해는 언제나 인간의 소망에 반하는 것이었고, 이에 인간은 자연 그 자체를 숭배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한 인간에게 최초로 발견된 가능성은 ‘시간’이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절이 영원할 수 없고, 태양이 그 자리를 달에게 내어주듯, 위대한 자연도 시간 앞에서는 영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에 인간은 첫 숭배의 대상이었던 자연 신들을 ‘시간’을 상징하는 크로노스(Cronus)의 반역을 통해서 폐위하기에 이른다. 주목할 점은 2세대 신들에 이르러 그들이 자연 그대로가 아닌 별도의 형상을 갖게 된다는 점이며, 그들의 형상이 거대화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¹⁸⁾ 이는 제어되지 않는 자연에 지친 인간이 자연의 한계를 찾아내기에 골몰하는 단계에서, 그들 자신의 형상을 통한 자연의 정복을 꿈꾸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인류의 무의식적 욕망은 3세대 신의 좌절에 이르러 1차적인 완성을 보게 된다.¹⁹⁾ 크로노스에 의해 탄생한 3세대 신들이 아버지인 크로노스에 의해 먹혀 사라지게 되는 것은 모든 존재를 필멸로 이끄는 시간의 불가역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크로노스에 대항하여 신들의 왕좌를 차지하게 되는 제우스(Zeus)의 존재는 시간의 속박을 벗어던진 불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티탄신족을 밀어내고 신위를 차지한 제우스와 그의 형제들의 형상은 인간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연의 거대한 힘을 무너뜨리는 시간의 힘,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형 신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존재성으로써 거대한 자연의 속박을 깨뜨리고 시간의 굴레마저도 벗어던지고자 하는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이 투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2세대 티탄 신의 계보에서 ‘천둥·번개·벼락’을 상징하던 퀴클롭스(Cyclops)²⁰⁾가 제우스의 권위 안에 복속되는 것도 자연 그 자체의 숭배에서 벗어나 그 주관자를 숭배하는 것으로 전이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주관자인 신이 인간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엿볼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제우스의 형제나 자녀들로 설정된 3세대와 4세대 신들이 인문적인 활동이나 인간적인 덕목을 상징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 화로와 화덕의 신인 헤스티아(Hestia), 농경의 신 데메테르(Demeter), 직조의 신 아테나(Athena),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Hepaistos) 등의 경우가 인간의 인문적인 활동을 상징하는 경우이며, 지혜의 신인 아폴론(Apollon)의 경우에는 인간적인 덕목을 상징하고 있는데²¹⁾, 이는 인간의 문명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간의 힘을 통해 세계를 정복해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그리스·로마 신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억압기제로 작용

18) 2세대 신들인 티탄(Titan) 신들은 거인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19) 앞의 책, 57~60면.

20) 퀴클롭스(Cyclops)는 가이와와 우라노스의 자녀로서, 브론테스(Brontes: 천둥), 스페로테스(Steropes: 번개), 아르게스(Arges: 벼락) 삼형제를 지칭하는 복수형의 별명이다. ‘퀴클롭스’의 뜻은 ‘둥근 눈’으로, 그들에게 존재했던 한 개의 둥근 눈을 지칭하는 것이다. 천둥을 의미하는 존재들이 하나의 눈을 지녔다는 것은 자연의 맹목적인 폭력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들 형제는 훗날 제우스에게 투신하여 그의 천둥을 버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제우스는 또한 아버지의 형제들인 하늘의 자식들을 우라노스가 마음의 눈이 멀어 묶어두었던 무시무시한 사슬에서 풀어주었다. 그들은 제우스의 은혜에 고마워한 나머지 거대한 가이아가 전에 숨겨두었던 천둥과 연기 나는 번개와 눈부신 벼락을 제우스에게 주었다. 제우스는 그것으로 인간과 영원한 신들을 다스린다.” 앞의 책, 60면.

21) 호메로스, 천병희 역, 『일리아스』, 숲, 2007, 725~736면 참조.

하는 세계와,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 욕망간의 갈등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연과 시간마저 거스르는 완전한 존재, 3세대 신격의 형상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인간적인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프로이트 식으로 얘기하면 세계라는 초자아(Super Ego)와 인간의 욕망(Id)이 갈등하여 자아(Ego)를 형성하게 되는 메커니즘과 닮아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신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도 세계에 직면한 인간의 콤플렉스에 의한 것이며, 그렇게 형성된 신화의 변주도 인간의 콤플렉스가 작용하는 과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신화의 형성과정도 이처럼 인간의 콤플렉스를 바탕으로 한 뜻인지, 신화 속에서 완전한 존재로 그려져야 할 신들의 형상마저도 지극히 인간적인 콤플렉스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했던 크로노스와 제우스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를 물리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욕망하는 인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적 욕망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자식에게 위협을 느끼고 제거하고자 하는 우라노스와 크로노스의 형상에서는 거세 콤플렉스적 양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신들의 형상에서마저도 인간 정신을 형성하는 욕망과 억압의 양상이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제우스의 모습을 살펴보면, 존재 소멸의 공포에 대한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모든 존재를 소멸하게 하는 ‘시간’의 상징 크로노스에 대항하여 불멸의 상징이 된 제우스는, 자신의 불멸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끝없이 성애에 집착한다.²²⁾ 자신의 존재성을 이어받은 후손을 탄생시킨다는 것은, 인간이 죽음을 뛰어넘어 존재성을 이어갈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다. 그에 인간은 필멸자로서의 인식으로 인해 후손을 얻기 위한 성애에 집착하게 된다. 그렇다면 필멸의 존재로서 후손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지속시키려 하는 인간의 콤플렉스가, 성애에 집착하는 제우스의 형상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미(美)의 여신 아프로디테(Aphrodite)의 형상을 통해서도, 아름다움에 관한 인간의 콤플렉스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스·로마 신화의 세계에서 아프로디테는 미(美), 성애(性愛), 다산(多産)의 여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이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Theogony)』에 따르면, 아프로디테는 크로노스가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거세하여 바다에 던진 생식기가 거품(aphros)으로 화(化)하여 그 거품 속에서 탄생한 존재로 그려진다.²³⁾ ‘하늘’을 상징하는 우라노스의 생식기가 생명력의 상징인 바다에 떨어져 그 마찰을 통하여 인 거품이 아프로디테를 낳는다. 그 탄생의 과정부터가 우주적인 성애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생식기와 바다의 마찰로 생긴 하얀 거품은, 성애의 과정을 통해 분출되는 정액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의 존재는 성애를 통한 생명의 탄생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그녀가 상징하는 ‘미(美)’는 성애의 대상으로 하여금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으로서의 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녀가 ‘인간들의 불멸’을 담당하였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성애를 통하여 생산된 후손의 존재를 통하여 영속성을 확인받는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그녀가 차지하는 위치는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22) 헤시오도스, 김원익 역, 앞의 책, 84~90면.

23) 앞의 책, 35~37면.

필멸자인 인간은 자신의 존재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성애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움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미에 대한 집착은 다시 아프로디테의 형상으로 드러난다. 인간으로서 아름다움을 칭송받는 프쉬케의 존재는, 아프로디테에게 있어서 미의 상징으로서 자신이 지닌 권위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에 프쉬케에게 ‘가장 추악한 자와 사랑에 빠지도록 하라’는 저주²⁴⁾를 내리는 아프로디테의 모습에서 절대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그녀의 집착을 볼 수 있다. 또 스스로 미의 여신이면서도 명계의 여왕 페르세포네에게 아름다움을 얻어 몸에 바르려는 모습은, 아름다움에 대한 그녀의 죽음 충동에 맞닿은 집착을 보여주기도 한다.²⁵⁾

또 아프로디테의 반려가 ‘추(醜)’의 대명사인 헤파이스토스라는 점과, 그를 끄찍하게 여겨 늘 피하고자 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되는 추함에 대한 공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프로디테의 반려가 헤파이스토스로 설정된 것처럼,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은 늘 추함에 대한 공포와 짝지어져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도 ‘완전성’을 뜻하는 신화 속 신의 형상이 오히려 완전한 콤플렉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압도적인 세계 속에 던져진 인간의 콤플렉스로 인해 형성된 신화가, 그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서도 인간 삶의 정신적 문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콤플렉스의 양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찍이 프로이트(S. Freud)는 그리스·로마의 신화 속 오이디푸스(Oedipus)의 형상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를 개념화함으로써 정신분석학 연구의 발전을 주도한 바 있다.²⁶⁾ 그리고 그러한 선례를 좇아 이후의 정신분석학을 비롯한 심리학 분야에서는 신화의 형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 주인공의 이름으로 수많은 콤플렉스들을 명명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선례는 신화의 서사를 통한 인간의 콤플렉스 연구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혹에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심리학 연구의 선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성과는 분명하다. 우선은, 인간이 지닌 다양한 콤플렉스의 양상들이 신화 속에 뚜렷한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점이다. 이는 신화가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원형적 문제의식을 나타낸다는 것을 전제한 서사적 콤플렉스 연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과는, 고도의 추상성을 띤 인간의 콤플렉스를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신화 속 주인공의 이름으로 명명함으로써, 콤플렉스라는 불가사의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실체화 하였다는 점이다. 대상이 분명치 않은 연구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콤플렉스가 이름 그 대로의 복잡 난해한 추상적 대상으로 남아있다면, 그 치유와 극복을 위한 연구는 요원한 일

24) 아프로디테는 그러한 저주를 실행토록 하기 위해 에로스를 내려 보내지만, 프쉬케의 아름다움에 반한 에로스로서 인해 그 저주를 실현시키지는 못한다.

25) 아프로디테의 명령으로 명계의 여왕 페르세포네를 찾아가 아름다움이 담긴 상자를 받아오던 프쉬케는, 그 아름다움을 자신의 몸에 조금 바르려는 생각으로 상자를 열었다가 상자 속에서 나온 죽음과도 같은 잠에 잠식당한다. 이러한 서사에서, 죽음의 충동에 상응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을 엿볼 수 있다.

26) Sigmund Freud, 김인순 역, 『꿈의 해석』, 열린책들, 2003, 311~321면.

이 된다. 그러한 점에서 추상적 대상인 콤플렉스를 구체적 형상으로 응결시킨 심리학 연구의 성과는 선구자적 의의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적 콤플렉스 연구들이 지닌 한계도 분명하다. 프로이트 이후로부터 심리학에서 콤플렉스의 원형으로 다루어진 신화의 서사들은 대개가 실패와 좌절의 서사이다. 따라서 그와 관련한 콤플렉스의 연구도 주로 그 양상을 드러내고 그러한 콤플렉스를 통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을 진단해내는 것에 그치고 있다. 대표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경우에도, 어머니와 결연한 오이디푸스의 서사는 어머니(혹은 아버지)와의 결합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설명하고, 눈이 먼 채로 떠돌게 되었다는 서사의 결말은 제어되지 못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위험성을 보여줄 뿐이다. 오이디푸스의 서사에도, 그와 관련한 연구에도 그 극복과 치유에 대한 실마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히 심리학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실패한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해 인간의 콤플렉스를 논하는 것이 전혀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개별적인 내담자들의 자료를 모으고, 분석을 통해 내담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는 인물의 형상을 찾아 그러한 콤플렉스를 명명한다. 따라서 신화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관심은 내담자들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형상 그 자체일 뿐이며, 그 치유와 극복은 적절한 상담과 약물 처치 등 신화의 서사가 아닌 현실 차원의 문제로 넘겨진다. 그에 심리학적 방법론에 따르면 위에 언급한 한계란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굳이 그러한 한계를 지적하는 이유는, 인간의 콤플렉스 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도 결국은 그러한 콤플렉스를 극복해 내는 신화 주인공들의 서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패와 좌절의 서사가 아닌 성공과 극복의 신화 서사를 통해 콤플렉스를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치유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신화를 통해 인간의 콤플렉스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는 이제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고 본다. 상담심리학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콤플렉스의 실체를 내담자가 인지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콤플렉스는 의식의 아래에 침잠해있는 무의식의 영역에 존재하며, 그것이 무의식의 영역에 속해 있기에 콤플렉스 반응을 촉발하는 자극이 있을 때에, 의식 차원에서는 제어하기 어려운 강렬한 정감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본다. 따라서 그 실체를 인지한다는 것은 무의식이라는 불가사의 영역에 존재하던 콤플렉스를 의식의 내용으로 동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²⁷⁾ 이렇게 인지의 영역으로 동화된 콤플렉스는 콤플렉스 당사자가 그것을 자극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의식적인 제어의 노력으로 문제적 반응을 억누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신화의 형상은 인간이 지닌 콤플렉스의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콤플렉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표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신화를 통한 콤플렉스의 연구는 신화의 형상을 통해 인간의 콤플렉스를 확인하는 정도로 그 의의를 다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콤플렉스의 명명에 신화 속 주인공의 형상을 사용했던 프로이트의 연구나, 그 이후로 이어진 상담심리학 상의 콤플렉스 연구를

27) C. G. Jung, *L'Énergétique psychique*, Genève Librairie de l'Université Georget Cie S. A., 1956, pp.84-87.

넘어서는 지점은 전무하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상담심리학자들이 새로운 콤플렉스를 발견하여 명명할 수 있는 신화적 비유들을 찾아내어 제공하는 시종의 역할을 자처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행한 것은 단순히 콤플렉스의 양상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치유와 극복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신화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신의 반려가 되어 신성을 획득하게 되었던 제우스의 아들로써 헤라의 시험을 이겨내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신의 반열에 오른 헤라클레스(Hercules), 고행을 통하여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고 붓다(Buddha)로 좌정한 석가모니(Sakyamuni)의 경우처럼, 인간의 한계상황 인식을 통해 만들어져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신화에서도, 그러한 한계를 깨뜨린 존재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한계 극복의 신화 서사를 통하여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치유와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의 신화이다. 한국의 신화, 그 중에서도 서사무가로 지칭되는 일군의 신화에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니게 되는 여러 가지 콤플렉스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다가, 그러한 고난을 극복해낸 결과로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많은 서사들이 마련되어있다.

예를 들어, <원천강본풀이>의 주인공 ‘오늘이’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의 인간이 지닌 근원적 고통을 형상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오늘이는 자기 존재의 문제성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잃어버린 자신의 근원을 찾아 신성한 존재로의 존재적 변화를 이루게 된다.²⁸⁾ <바리데기>의 주인공 바리공주도 이름 그대로 부모에게서 버려진 존재로서, 자기 존재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저승으로의 구약행(救藥行)을 통해 무조신(巫祖神)으로서의 존재변화를 이루게 된다. 그밖에 <세경본풀이>의 자청비,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 <제석본풀이>의 당금애기, <차사본풀이>의 강림도령 등,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으로서의 완전한 존재성을 얻게 되는 주인공들이 대다수의 한국 신화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 창세신화인 <천지왕본풀이>는 천지왕의 아들인 대별왕과 소별왕 형제를 통해 이승과 저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사가 매듭지어지는데, 이들 또한 천상신인 아버지와 지상의 인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지닌 인물이었다. 말하자면, 세계의 탄생을 노래하는 창세신화에서부터 한계적 존재인 인간이 완전성을 지닌 신격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한국 신화에서 말하는 ‘신성(神性)’이란 ‘완전한 인간성’을 말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이다.²⁹⁾

한국 신화가 지닌 이러한 자질은, 신화의 서사를 통해 콤플렉스의 양상을 살피는 것은 물론 그 치유와 극복의 가능성까지를 탐색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인격 -> 신격’으로의 존재 변화는, 결국 신성한 주인공의 서사, 자기 자신의 삶과 다르지 않은 그 서사를

28)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에서 주인공 ‘오늘이’가 여행을 통해 신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고찰은 조홍윤,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학』 제23집, 남도민속학회, 2011, 409~436면을 통하여 자세히 다룬바 있다.

29) 한국 신화에 나타나는 신성관념과 인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즐고, 「서사무가를 통해 본 한국 신화의 공간인식체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에서 투박하게나마 논의한 바 있다.

통하여, 그 서사에 동참하는 이들이 지닌 존재적 한계가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한국의 신화 서사를 체험함으로써 콤플렉스적 존재인 우리들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해나가는 신화 주인공의 형상, 그에 투영된 우리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그 치유와 극복을 위한 힘, 신성을 내면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에 한국의 신화를 콤플렉스와 그 치유에 대한 서사로 이해하고, 그 서사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 신화의 주인공들이 자신의 삶에서 콤플렉스를 치유하고 극복해나가는 과정들을 면밀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콤플렉스의 문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그 치유와 극복의 단서와 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 신화의 서사가 콤플렉스의 양상을 드러내고 그 극복과 치유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였을 때, 과연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그것을 구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이 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의 구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한국 신화를 콤플렉스의 서사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그 서사를 통해 드러나는 콤플렉스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주인공의 콤플렉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화 되어있는지가 확연히 드러난 상태에서, 각각의 서사 국면에서 그 콤플렉스를 이루는 구조가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치유와 극복의 단계에 도달하였는지를 구명해 낼 수 있어야 콤플렉스의 치유와 극복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화 주인공의 정신적 문제로 작용하는 콤플렉스의 양상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다시 콤플렉스의 형성 원리에 대한 정신분석학 연구의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로이트 이후로 콤플렉스의 형성 원리에 관한 진지한 고찰이 정신분석학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고, 수많은 내담자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구축된 콤플렉스 이론의 성과 또한 실효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화의 서사를 통한 서사적 콤플렉스 연구에 있어서도,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콤플렉스 구조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정신분석학 분야의 선구자적 위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인간의 콤플렉스가 형성되는 원리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미 있는 발견이 이루어졌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프로이트의 분석 작업에 의해서였다. 그는 콤플렉스의 형성이 유아기성욕의 억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남자 아이의 경우,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본능: Id)은 아버지(초자아: Super ego)라는 장애로 인해 억압되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발생하게 된다(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욕망의 대상과 억압의 대상이 반대로 나타난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의 의식(자아: ego)은 억압의 대상인 아버지와 자신의 동일시를 강화하거나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상반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억압된 욕망의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 어린아이가 자람에 따라 억압기제의 역할은 교사나 다른 권위적 인물에 의해서 계승된다. 그들의 명령과 금제는 자아 이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양심의 형태로 도덕적 검열을 계속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본능의 욕망과 그것을 억압하는 초자아, 양자의 영향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자아의 작용을 통하여 정신적인

삶의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의 삶 전반을 구성하는 정신적 과정의 메커니즘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불완전하게 해소된 경우라면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정신적 고통이 지속될 수 있으며, 신경증이나 각종 정신질환의 원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유아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형성과 이후의 삶을 통한 계승은 인간의 보편적 과정으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정신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³⁰⁾

프로이트가 말한 콤플렉스의 형성원리에 따르면, 콤플렉스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축이라 할 수 있다.³¹⁾ 인간의 본능적 욕망에 해당하는 이드(Id)와 그에 대한 억압기제로 작용하는 초자아(Super ego)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아(Ego)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자아는 원초적 콤플렉스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문제를 경험함으로써 작동방식을 정하게 되고, 그렇게 정해진 작동방식에 따라 이후로 발생하는 욕망과 억압의 문제를 승계하여 처리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이때 콤플렉스 형성의 한 축을 이루는 초자아는 양심이나 도덕의 검열 기제로 작용하는 ‘세계’의 관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의 관념은 부모나 교사, 혹은 권위자라는 ‘관계 대상’을 통하여 자아에 작용한다. 콤플렉스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이드는 본능적 욕망의 주체인 ‘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나’의 욕망이 자아에 작용함으로써 콤플렉스를 형성한다. 이처럼 ‘세계’와 ‘나’라는 양축이 ‘자아’라고 하는 판단기재에 의해서 조합되고 있는 것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콤플렉스의 문제를 욕망과 억압의 측면에서만 다루었던 프로이트와는 달리, 융은 유아기의 모든 정감적 사건(Affective event: 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였던 사건)들이 하나의 콤플렉스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형성되었던 콤플렉스는 그와 관련 있는 정신요소나 이미 존재하는 콤플렉스를 만나지 못하면, 감정적 색조를 잃고 하나의 기억 덩어리로 무의식에 남게 된다. 그러다가 그러한 콤플렉스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나 계열성을 띠는 다른 콤플렉스를 만나 재활성화 되면, 그것은 콤플렉스의 원인이 된 정감적 사건을 강화시켜 격한 반응을 일으키고, 콤플렉스를 강화시킨다.³²⁾

융의 콤플렉스 형성 원리에 따르면, 천차만별의 경험이 각각 인간의 콤플렉스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심지어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콤플렉스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원형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모두 콤플렉스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³³⁾ 말하자면 인간의 무의식이 응어리진 것 그 자체가 콤플렉스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불가사의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정감적 색조가 강조된 콤플렉스가 특정 자극에 대하여 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에 그 양상을 살필 수 있게 되어, 그 반응을 콤플렉스 반응으

30) Sigmund Freud, 박찬부 역, 「자아와 이드」,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 책들, 2003, 371~407면.

31) 프로이트의 경우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설명하는 과정으로써 그가 주장하는 콤플렉스 형성 원리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억압되어 무의식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C. G. Jung, *The Psychology of the Unconsciou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140.

33) C.G.Jung, *Problém de L'âme moderne*, Paris:Buchet/Chastel, 1976, pp.202-210.

로 지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융의 주장에 따라 콤플렉스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를 분석해보자. 모든 정감적 사건들이 콤플렉스를 형성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콤플렉스를 이루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 오는 자극,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 받게 되는 자극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콤플렉스는 세 개의 축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관계의 대상’을 통해 받는 자극과 순수하게 ‘외부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한 자극, 그리고 ‘나’의 무의식에 자리한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 및 ‘나’에 의해 발생한 정감적 사건에 의한 자극, 그에 대한 ‘나’의 정감적 반응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아들러의 경우에는 콤플렉스의 형성이, 스스로의 신체적 열등감에 대한 인식, 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관계 대상과의 비교를 통한 열등감의 인식에 의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도, 누구에게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체기관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능력이 있기 마련이다. 이처럼 개인의 문제로 귀속되는 열등감의 문제는 ‘기관 열등감’으로 보는데, 이러한 기관 열등감에 대하여 취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강화하는 방식이나 취약한 부분을 포기하고 다른 부분을 개발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무의식적 움직임을 취한다고 본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유년 시절에는 형제와의 비교를 통해, 혹은 부모의 요구 수준에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사회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속 집단과의 비교 및 소속 집단의 요구 수준에 자신을 비교한 결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받으려는 무의식적 움직임이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³⁴⁾

이 경우에 콤플렉스의 구조를 이루는 것은 기관 열등감을 형성하는 ‘나’에 의한 ‘나’의 판단과, 사회적 열등감을 형성하는 ‘사회’에 의한 ‘나’의 판단이라는 두 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를 세분화하면, ‘관계의 대상’, ‘외부의 세계’의 두 축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세 축의 기준점을 통하여 ‘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때, 기준점에서 제시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어느 부분이 무의식적인 열등 콤플렉스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콤플렉스의 형성원리를 살펴본 결과 공통된 구조의 축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각각의 경우에 ‘나’에 대한 ‘나’, ‘관계의 대상’, ‘외부의 세계’의 판단이나 반응이 있고, ‘나’에 대한 ‘나’, ‘관계의 대상’, ‘외부의 세계’의 자극이나 요구, 억압이 설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관계의 대상-나’, ‘외부의 세계-나’, ‘나-나’의 관계구조를 인간의 콤플렉스를 형성하는 세 가지 축으로 삼아서, 신화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콤플렉스의 구조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본고에서 의도하고 있는 콤플렉스의 서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주인공에게 형성되어 있는 콤플렉스의 구조가 서사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가고, 결과적으로 치유와 극복의 지점에 다다르는지 살펴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흐름만을 고려한 분석은 자칫 서사의 주요 국면과 주인공의 형상이 나타내는 의미를 놓칠 우려가 있음을 선행연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콤플렉스 구조의 구명에 선행하여 콤플렉스적 양상을

34) Alfred Adler, 라영균 역, 『인간 이해』, 일빛, 2009, 73~75면.

나타내는 주인공의 형상에 대한 대립구조 분석이 정치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러 대립요소들의 추출을 통해 그 중 콤플렉스의 중핵으로 작용하고 있는 핵심 대립구조를 중심으로 세 관계 축에 따른 콤플렉스 구조의 형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러한 콤플렉스 구조의 변화과정을 살핌에 있어서도 서사의 국면에 따른 순차구조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순차구조가 나타내는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낸 상태에서 그 중 콤플렉스의 치유와 극복에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면에 대하여 콤플렉스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핌으로써 신화의 주인공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치유해나가는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미시적 분석 틀의 준비를 통해, 기본적으로 신화 주인공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콤플렉스 사례에 대해서만은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분석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또 그 치유와 극복의 방법을 발견해 내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의미요소들을 빠뜨리지 않고 건져 올릴 수 있는 촘촘한 그물망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3. 콤플렉스 서사로서의 한국 신화 분석

-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 <숙영랑·앵연랑신가(淑英郎·鶯蓮娘神歌)>

<숙영랑·앵연랑신가(淑英郎·鶯蓮娘神歌)>는 함경도 지역에서 연행되던 서사무가(敍事巫歌)의 일종으로, 장님으로 태어난 거북이와 앓은뱅이로 태어난 남생이 형제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장애를 치유하고 혼수성인으로 좌정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신화이다. 혼수성인이란 어린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기원의 대상이 되는 신격을 말한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는 병(病)과 그 치유에 대한 신화적 인식이 녹아있을 것이며, 주인공의 형상을 통해 ‘장애’, ‘외모의 추함’ 등의 신체적 열등감에 대한 인식과 그 치유와 극복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벌써 오래전에 소개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인데,³⁵⁾ 이는 <숙영랑·앵연랑 신가>의 이본 자료가 다양하게 전승되지 않고 있다는 점,³⁶⁾ 본디 함경도 함흥 지역의 무가이므로 현재 그 제차 및 전승양

35) <숙영랑·앵연랑신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다만 서사적 유사성에 대한 논의에서 잠깐씩 언급되거나(임석재,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화의 세계 - 함경도 무속의 성격」, 『함경도 망목굿 - 베를 갈라 저승길을 닦아주는 굿』, 열화당, 1985, 70~90면; 권태효, 「제주도 <맹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민속학』 제32집, 한국민속학회, 2000, 151~194면), 불교 설화의 구비문학적 수용 양상을 살피는 논의에서 소략하게 다루어졌을 뿐이다(신호림, 「소경과 앓은뱅이 서사의 불교적 의미와 구비문학적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37집, 한국구비문학회, 2013, 225~256면).

36) 손진태가 1926년에 함흥에서 김쌍돌이의 구연 내용을 채록한 <숙영랑·앵연랑신가>가 있고(손진태, 『조선신가유편』, 동경 향토연구소, 1930, 7~67면), 이와 유사한 자료로서 평안도 강계에서 손진태가 채록한 전명수 구연 <데석님 청배>(손진태, 『손진태선생전집』 5, 태학사, 1981, 276~280면), 임석재와 장주근이 1965년 채록한 강춘옥본 <훈쉬굿>에 <황천훈시>와 <숙영랑·앵연랑신가>가 결합된 형태로 조사된 바 있다(문화재관리국 편,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3집, 한국인문과학원, 1998, 375~380면). 그밖에 <숙영랑·앵연랑신가>를 현대어로 재구하여 <거북이와 남생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김태곤의 저서(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5, 216~220면)가 있으며, 최원오와 신동훈의 저서에도 현대어로 재구된 자료가 수록되어있다(최원오,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 한국신화』, 여름언덕, 2004, 181~186면;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출판, 2004, 294~299면). 김태곤과 최원오,

상을 알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³⁷⁾

연구의 기반으로 삼을 만한 선행연구의 존재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숙영랑·앵연랑신가>의 가치가 재고될 수 있음을 기대하며, <숙영랑·앵연랑신가>의 주인공 거북이·남생이의 서사를 통해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로 인한 콤플렉스의 구조와 그 변화, 치유와 극복의 과정까지를 면밀히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실제의 <숙영랑·앵연랑신가>는 부모인 숙영선비와 앵연각시의 결연과정, 자식을 보지 못한 부부가 기자치성(祈子致誠)을 드리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 전체 분량의 반가량 될 만큼 길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전체 맥락상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이야기의 서사는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북이와 남생이의 치유에 중심이 있다고 하겠다.³⁸⁾ 따라서 거북이와 남생이의 서사에 중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그 서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 (1) 숙영선비와 앵연각시가 혼기가 차서 성대하게 혼인을 치러 풍족하게 산다.
- (2) 부부가 나이 마흔이 되도록 자식이 없자 생금(生金) 한 봉을 가지고 가서 점을 보니, 정성을 드려야 자식을 보겠다고 한다.
- (3) 부부가 안애산 금상사에 가서 갖은 정성을 드리고 동침하니 그 달부터 태기가 있었다.
- (4) 첫 아이를 낳았으나 눈을 뜨지 못하므로, 화를 내며 이름을 거북이라 짓고 유모에게 맡긴 채 돌보지 않는다.
- (5) 이어 둘째 아이를 낳았으나 꿈추에 앉은뱅이라, 화를 내며 이름을 남생이라 짓고 유모에게 맡긴 채 돌아보지 않는다.
- (6) 부부는 화병을 못 이겨 죽고, 형제만 남아 있는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므로 부모의 많던 재산도 다해 거지가 된다.
- (7) 형제가 밥을 빌러 다녀도 거두어 먹이는 이가 없다.
- (8) 남생이가 말하길, 부모가 자신들을 얻기 위해 정성을 드렸던 금상사에 가서 부처를 만나보자고 하니, 거북이는 남생이를 업어 다리 노릇을 하고 남생이는 눈 노릇을 하며 길을 떠난다.
- (9) 금상사 어귀에 이르자 연못에 생금이 떠 있었으므로 남생이가 금덩이를 건져가자고 하였으나 거북이가 가져 봐야 쓸 수나 있겠느냐며 만류하고는 둘이 절에 들어간다.
- (10) 절에 들어가니, 부처가 불목하니에게 이르길 그 아이들이 생기느라 절에 생금탑을 쌓았으니 금공부를 시키고, 세 끼니를 쌀밥으로 잘 지어 먹이라고 한다.
- (11) 불목하니가 일이 많아진 것을 탓하며 부처 모르게 아이들을 괴롭힌다.
- (12) 아이들이 불목하니의 괴롭힘을 벗어나려고 연못에 있는 생금에 대해 이야기한다.
- (13) 불목하니가 나가보니 큰 구렁이만 있으므로 아이들을 더 괴롭힌다.
- (14) 아이들이 나가보니 본래대로 금이 있어, 그것을 불전에 안고 들어온다.
- (15) 아이들이 금을 안고 들어오자 절이 춤을 추고, 부처와 절 안에 금칠이 입혀진다.

신동훈이 참고한 자료는 김쌍돌이본 <숙영랑·앵연랑신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데석님 청배>의 경우, 서사의 마지막에 오누이가 좌정한 신직이 농산의 풍요와 관계된다는 점이 서사적 완결성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훈취곳>의 후반에 제시된 거북이 남생이의 서사는 <지성이면 감천> 설화가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화 서사로서의 완결성이 두드러지며 가장 먼저 채록된 자료이기도 한 김쌍돌이본 <숙영랑·앵연랑신가>를 주요 텍스트로 삼아 논의할 것이다.

37) “이 세 작품은 곳에서 불리는 서사무가로 함경도 및 평안북도 지역 외에서는 발견되지 않한다는 점에서 주목되었지만, 채록과정에서 연행 환경이나 곳의 제차(祭次), 음악 등 콘텍스트(context)적 정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서사의 유사성을 지적한 연구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신호림, 앞의 논문, 246면.

38) 이야기의 서두에 부모의 결연담이나 거북이와 남생이를 얻기 위한 기자치성에 대하여 길게 서술되고 있는 것은, 결연과정과 기자치성에 대해 관습적인 상투구를 나열하곤 하나는 한국의 구비문학적 전통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야기의 제목도 <거북이와 남생이>로 하는 것이 옳겠으나, 채록 당사자가 정한 것을 그대로 따른다.

(16)부처가 거북이의 눈을 뜨게 하고 남생이를 일으켜 세운다.

(17)아이들은 세상에 나와 여든한 살까지 잘 살다가 죽어 혼수성인이 된다.

위와 같이 정리된 거북이·남생이의 서사를 참고하여, 본격적으로 거북이·남생이가 지닌 콤플렉스의 구조를 살피고, 그 변화의 과정을 고찰하여 신체적 열등감으로 인한 콤플렉스의 문제에 대해 그 치유와 극복의 길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3.1.1. 거북이 남생이의 콤플렉스 구조 - 타인에 의해 규정된 존재성의 수용

거북이·남생이의 콤플렉스 문제와 그 변화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 먼저 거북이·남생이의 내면에 형성되어 문제를 만들어내는 콤플렉스의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 분석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서사단락 (1)~(3)에는 첫 아이인 거북이를 얻게 된 숙영선비와 앵연각시가 어렵게 얻은 자식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열달만에誕生하니 '
 발가한男子가낫소아 '
 잘낫기도잘낫소 '
 함씩엿혜해가듯고 '
 함씩엿혜달이듯고 '
 天下一色이아기 '
 잘낫기도잘나고 '
 貴하기도貴하오 39)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에 “한쪽 옆에는 해가 돋은 듯하고, 한쪽 옆에는 달이 돋은 듯” 빛이 났다고 하는 표현은, 오랜 세월 아이를 기다려온 숙영선비와 앵연각시에게 있어 출산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다. 서사단락 (4)~(5)에 제시되었듯이, 부부가 그토록 기다려온 아이가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났음이 밝혀지게 된 까닭이다.

그아기三日이되여도 '눈을안씨와 '
 첫일해되여도눈을안이씨와 '
 세일해되여도눈을안이씨와 '
 석달이되여도눈을안이씨와 '
 그적에大監님과夫人님이 '
 빗질가튼손 ㅅ질노쌍을쌍 ㅅ치며 '
 山川도無情하다 '
 聖人도고이업다 '

39) 손진태, 앞의 책, 49면.

人間榮華를보려편다니 '

압뭇보는판수子息을무엇하겠니 °

이애기이름을짓되는 거북이라고 '

乳母불너乳母주고 °

애기세쌀이되엿소아 '

또一氣同품하니 '

또아기서럼하와 '

...(중략)...

사흘만에애기를香물에沐浴식히자고 '

등을만지니 '등곱쟁이오 '

다리를만지니 '함씩다리찌르오 안존뱅이오 °

大監님과夫人님이心思를쳐쓰다가 '

乳母를불너줄적에 '

일흠을남생이라고 40)

첫째 아이는 삼일, 열흘,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다가도록 눈을 뜨지 않는다. 그때에야 비로소 부부는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음을 인식하게 된다. 나이 마흔에 얻은 첫 아이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어긋나 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첫 아이의 장애를 인식하게 되자, 유모를 불러 아이의 양육을 맡겨버리는 부부의 모습에서, 반전된 기대에 의한 절망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이어 둘째 아이를 잉태함으로써 부부는 새로운 기대로 절망을 씻어낼 수 있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절망이 둘째 아이에 대한 더 큰 기대로 이어지게 된 상황이다. 마침내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으나, 둘째 아이는 등에 혹이 붙겨져있고, 한쪽 다리가 짧은 앓은뱅이였다. 그렇게 아이들의 신체적 장애를 인지하는 순간 숙영선비와 앵연각시 부부는 아이에게 걸었던 기대만큼이나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부부가 기대했던 건강한 아이의 출산이 '이상'이라고 한다면, 거북이·남생이의 출산은 부정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상적 아이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장애를 가진 아이로 인한 '절망'으로 화하는 과정이 거북이와 남생이의 출산 과정을 통해 그려지고 있다고 하겠다.

○ 숙영선비·앵연각시: 이상/현실 = 이상적 자녀상/현실의 자녀,
건강한 아이 출산/거북이·남생이 출산, 기대/절망

자녀의 장애를 인식하게 된 부모의 경우, 1차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함께, 부모로서 내면에 품고 있던 이상적인 자녀상이 붕괴되고, 그에 따라 '자녀의 죽음'에 준하는 절망감이 엄습하게 된다.⁴¹⁾ 늦은 나이에 자녀를 얻게 된 숙영랑 부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자녀상의 이상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상적 자녀상의 상실에 의한 충격이 그만큼 더 강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40) 앞의 책, 50~53면.

41) 신현기, 「장애아동 부모의 심리적 갈등과정과 부모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제6집,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993, 228면.

그러한 감정은 2차적으로 분노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 분노의 내용이란 첫째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아 그 대상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⁴²⁾ ‘빗질 하듯 땅을 치며’, 아이들을 접지받기 위해 기자치성을 드렸던 ‘산천’, ‘성인’들을 원망하는 모습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분노를 표출하는 후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가 느낀 충격과 절망, 분노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거부적인 부모(rejecting parents)’⁴³⁾의 양육태도를 보이게끔 한다. 숙영랑 부부는 흥하고 괴상한 생김새를 빗대어 아이들의 이름을 ‘거북이·남생이’라 짓고, 유모에게 떠넘긴 채로 양육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장애아의 부모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양육의 태도이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극도로 낮아져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극-반응’의 상호작용을 기대하지 않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들은 아이의 발전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를 무용지물로 생각하게 된다.⁴⁴⁾ 거북이·남생이에 대한 숙영랑 부부의 ‘거부적인 부모’로서의 인식은, “앞 못 보는 자식을 무엇 하겠니”라고 하는 발언에 드러나고 있다. ‘장애를 지닌 이 아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를 지닌 이 아이는 내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하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것처럼 무능(無能)의 존재, 무용(無用)의 존재로서 아이들을 인식한 부모는 아이들의 양육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 앞 못 보는 자식을 무엇 하겠니: 아이에 대한 무능무용(無能無用)의 존재라는 평가

서사단락 (6)에 이르러 부모들은 결국 화병을 못 이기고 죽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器物은 億十萬財_二데 ‘
父母들이 火病_一이 들어다 죽소야 ⁴⁵⁾

표현 그대로 심화(心火)를 못 이겨 죽음을 맞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상징적인 이해도 가능하다. 부모가 거북이·남생이를 무능무용(無能無用)의 존재로 여기고 양육을 포기하는 순간, 거북이·남생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는 부재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 부모의 죽음: 실제/상징 = 죽음/양육 포기 = 부모 부재

이처럼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북이·남생이를 그들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방식은, ‘거부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무능무용(無能無用)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42) 앞의 논문, 229면.

43) 앞의 논문, 231면.

44) 앞의 논문, 231면.

45) 손진태, 앞의 책, 53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거북이와 남생이가 그러한 부모의 가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점이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아동의 자아(self) 형성에 부모의 애정과 관심, 평가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본다.⁴⁶⁾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평가가 그대로 자녀에게 수용되기 쉬우며, 자녀는 부모의 평가 기준을 수용하여 자신을 판단하고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거북이와 남생이의 경우에도 그들 부모의 평가를 수용하여, 자신들을 무능하고 무용한 존재로 평가하고, 무능무용의 자아상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마치 식물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가애들이그器物을

눅코먹고 '눅코쓰고 '

미구에가난뱅이되였소아 ⁴⁷⁾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모의 유산으로 먹고 사는 방법을 택한다. 부모의 평가에 따라, 스스로에 대하여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판단 내린 것이다. 부모의 평가기준을 수용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의 준거로 삼고, 이를 통하여 무능무용한 존재로서의 삶을, 자기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신체화 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거북이·남생이로서도 건강한 신체를 타고나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애정과 보살핌을 받는 것을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나 부모를 절망케 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상황이다.⁴⁸⁾ 그러한 현실 인식으로 인한 절망감이 거북이와 남생이로 하여금 '무능한 존재'라는 부모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스스로의 존재적 이상에 비교하였을 때에도, 그들의 현실적 존재성은 지극히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거북이·남생이: 이상/현실 = 건강한 신체/신체적 장애, 모의 기대 충족/부모의 절망, 부모의 애정과 보살핌/부모의 죽음

- 현실 인식으로 인한 절망 ->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부모의 평가 수용
-> 무능무용한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 -> 무능무용한 존재로서의 삶

그렇게 무능하고 무용한 존재로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 거북이·남생이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놓고 먹고, 놓고 쓰는' 동안에 결국은 부모가 물려준 재물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스스로 생계수단을 갖지 못한 거북이·남생이에게 있어 유산의 소멸은 존재유지의 위기에 준하는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거북이·남생이가 선택한 방법은, 부모의 유산으로 살아가던 이전의 그것과 다를 것

46) 송명자, 『발달심리학』, 학지사, 1995, 257면.

47) 손진태, 앞의 책, 53면.

48) 실제이든 상징적인 죽음이든 그들의 신체적 장애가 부모의 부재, 곧 '죽음'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 없다. 스스로 생계를 도모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과는 다른 유능(有能)하고 유용(有用)한 타인의 존재에 기대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혈수업시 '돌이손목을붓들고'
밥비러먹어려갓서나'
그宅에서病身들을
엇제그저거더먹이라'
다시오지말어라 49)

스스로의 손으로 생계 수단을 마련하는 일은 거북이·남생이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무능한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으로 인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부모의 유산에 의지했듯이, 그들은 유능한 타인의 아량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거북이와 남생이가 최초로 맞닥뜨린 외부의 세상은, 그들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존재성 그대로 그들을 인식한다. “병신 들을 어찌 그저 견어 먹이라”라고 하는 집주인의 반응은, 그들의 장애를 인식해서라기보다는, 그 집의 대문을 두드려 밥을 빌어먹으려한 거북이·남생이의 의도에 대응한 것이었다. 자신을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이 인식한 존재성 그대로를 세상에 나타내었기에, 거북이·남생이에 대한 세상의 평가도 그들 자신이 보여주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거북이·남생이는 자기 존재에 대한 문제적 인식, ‘무능한 존재’라는 자기인식을 통해 존재유지의 위기라는 문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지금까지 거북이와 남생이가 신체적 열등감으로 인해 콤플렉스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 존재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기까지의 서사를 살펴보았다. 그러한 콤플렉스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거북이·남생이에 대한 부모 숙영선비·앵연각시의 평가, 그러한 평가를 수용한 거북이·남생이의 자기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거북이와 남생이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이상적인 아이의 출산에 대한 기대가 좌절된 현실에 의한 것이다. 또한, 그러한 평가를 거북이와 남생이가 수용하게 된 것도 자신의 존재적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좌절이 원인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거북이와 남생이의 콤플렉스를 이루는 핵심적인 대립구조는 ‘이상/현실’의 대립일 것이다.

○ 핵심 대립구조: 이상/현실

○ 숙영선비·앵연각시: 이상/현실 = 이상적 자녀상/현실의 자녀,
건강한 아이 출산/거북이·남생이 출산, 기대/절망,
행복한 삶/죽음

숙영선비·앵연각시의 현실 인식: 아이에 대한 무능무용의 존재라는 평가

49) 앞의 책, 53면.

- 거북이·남생이: 이상/현실 = 건강한 신체/신체적 장애, 모의 기대 충족/부모의 절망, 부모의 애정과 보살핌/부모의 죽음

거북이·남생이의 현실 인식: 절망 ->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부모의 평가 수용
 -> 무능무용한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
 -> 무능무용한 존재로서의 삶

이러한 핵심 대립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신체적 열등감으로 인한 거북이와 남생이의 문제적 자기인식, 콤플렉스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겠다. ‘관계의 대상’인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라는 ‘현실’을 인식한 충격과, ‘이상적인 자녀상’의 붕괴에 의한 절망과 분노로 인해 ‘거부적 부모’로서의 입장을 취하게 되고, 거북이와 남생이를 ‘무능한 존재’로서 인식한다. 이에 대하여 거북이와 남생이는 자신들의 ‘이상적 존재상’과는 달리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나 부모의 죽음을 초래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 절망감으로 인해 자신들에 대한 부모의 평가를 그대로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렇게 수용된 부모의 판단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게 됨으로써 ‘나’는 무능한 존재로서 확정되고, 무능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한 자기평가의 영향력은 ‘외부의 세계’에서 조우한 집주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신체적 장애를 지닌 존재라고는 해도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유능한 타인의 아량에 기대려고만 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외부의 세계’를 표상하는 집주인은 ‘나’의 자기평가를 수용하여, 그 역시 ‘나’를 무능자로서 판단 내리게 된다. 이처럼 ‘무능하고 무용한 존재’라는 거북이·남생이에 대한 평가는 ‘관계의 대상 -> 나 -> 외부의 세계’로 연쇄적으로 수용되어 결국 ‘외부의 세계 -> 나’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와 같은 콤플렉스의 구조를 한 마디로 ‘부정적 평가 수용의 연쇄 구조’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거북이·남생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연쇄적으로 수용·순환되며 부정적인 경험을 계속 누적시키게 되는 콤플렉스의 구조가 거북이 남생이를 극단의 존재적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3.1.2. 거북이·남생이의 콤플렉스 극복과정

- 자신의 눈으로 발견하고 획득한 자기 존재의 가치

거북이·남생이가 자신의 존재적 문제성을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신성(神性)’을 획득함으로써 완전한 존재적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읊아매어 극단적인 존재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가던 콤플렉스가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거북이와 남생이의 서사를 따라서 각각의 국면에 나타나는 그들의 행동방식과, 그로 인한 콤플렉스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사의 주요 국면에 나타난 거북이·남생이의 행위가 그들의 콤플렉스 구조 변화에 주는 영향이 확인될 수 있다면, 신체적 열등감을 그 내용으로 하는 콤플렉스 문제의 치유와 극복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거북이·남생이가 집주인에게 의탁하기를 실패한 이후로, 그들의 서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주요 국면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순차가 될 수 있다.

- A. 금상사(金祥寺)로의 여행 결심
- B. 금상사로의 여정
- C. 금상사에서의 삶
- D. 장애의 치유와 현실 복귀
- E. 혼수성인으로서의 좌절

A에 해당하는 서사는 (7)~(8)단락을 거쳐 제시되고 있다. 부모의 유산이 탕진되고, 다른 의탁처를 찾는 것에도 실패한 형제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봉착한다. 무능한 존재로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유능한 타인의 자비에 의해서만 삶을 지속할 수 있다고 여겼던 형제가, 타인에의 의탁을 거부당함으로써 존재의 유지를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분기점이 생긴다. '원래의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인간은 깊은 성찰의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한다. 깊은 절망과 슬픔이 때때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이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남생이와거북이大門뵈게나와서 '
 돌이올었소아 50)

위에는 의탁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형제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 울음은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막막함에 더하여,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되어 멸시받는 설움, 멸시를 받으면서도 타인의 자비를 구해야만 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 등이 복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울음: 생계의 위협에 대한 막막함, 무능의 존재성에 대한 회의

형제는 그토록 무능한 자기 존재가 슬프고,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는 자신이 슬퍼서 울다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다르게 살 수는 없는가?'하는 의문은 '나는 다르게 살 수 없는 존재인가?'하는 의문과 맞닿아 있다.

- 무능의 존재성에 대한 회의 -> 무능의 존재성에 대한 의문

부모의 평가, 세상의 평가를 고스란히 자신의 기준으로 삼았던 거북이·남생이가 처음으로 스스로의 존재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것이다.

곱쟁이말이 '

50) 앞의 책, 54면.

우리생간안에山金祥절에가서 '
이망불부체●금앙불부체
人間指導하는生佛聖人 ⁵¹⁾

제시된 대로, 형제는 자신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부모가 정성을 드린 바 있는 금상사(金祥寺)에 찾아갈 생각을 하게 된다.⁵²⁾ 원문에 드러난 남생이의 발언이,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의탁을 거부당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명분이 있는 곳을 찾아가 의탁을 하려는 의도로 읽힐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해석대로라면 그들의 의도는 삶의 방식에 궁극적인 변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금상사(金祥寺)로의 여행: 새로운 의탁처 탐색/존재성에 대한 의문 해소,
존재성 유지/존재성 재확인

그러나 자구를 자세히 풀어보면 좀 더 분명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남생이의 발화에 등장하는 존재는 총 둘이다. ‘이망불’과 ‘금앙불’은 ‘인왕불(仁王佛)’과 ‘금강불(金剛佛)’의 와음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둘은 모두 사찰의 산문을 지키는 금강역사(金剛力士)를 지칭하는 말이다. 금강불이 지닌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남생이의 발화에 등장하는 최후의 존재가 생불성인(生佛聖人)임을 고려하면, 남생이가 궁극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존재는 생불성인으로, 금강불은 생불성인을 만나기 위한 과정에 거치게 될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생불성인의 역할이 ‘인간을 지도하는(人間指導)’ 것이라면, 남생이의 목적은 생불성인을 만나 살아갈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얻는 것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얻고자 찾아가는 곳이 그들의 연원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존재성을 재확인 하는 것에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 금상사(金祥寺)로의 여행: 존재성에 대한 의문 해소를 통한 존재성 재확인

이로써 ‘A.금상사로의 여행 결심’ 순차의 서사가 의미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규정되고 내면화된 무능의 존재성으로 인해 거북이와 남생이는 존재유지의 위협에 직면

51) 앞의 책, 54면.

52) <숙영랑·앵연랑신가>의 전반부에는 거북이·남생이를 얻고자 금상사를 찾아가 생불성인에게 기차치성을 드리는 숙영랑·앵연랑 부부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宮습을가리니,
積德을드리고, 功德을드려야,
子息보겠다고,

(중략)

안애山金祥절에차저가서,
이망佛부체, 그망佛부체,
人間指導하는生佛聖人,
거기가서석달열흘을祈禱하소.
앞의 책, 46~47면.

한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거북이와 남생이는 자신들이 내면화한 부모의 평가, ‘무능한 존재’라는 인식에 대한 의혹을 품게 된다. 그에 따라 자신들의 존재적 근원이 되는 금상사로의 여행을 통해, 자신들을 접지한 생불성인을 만나 자신들의 존재성을 확인하고자 길을 떠나기로 한다. 그러므로 A의 서사는 ‘존재성에 대한 의혹과 확인을 위한 여행’으로 정리 될 수 있겠다.

A' . 존재성에 대한 의혹과 확인을 위한 여행

이를 다시 의미화한다면, 금상사로의 여행은 거북이와 남생이가 자신들의 존재성을 새로이 인식할 준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존재성을 새로이 인식할 필요를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A의 서사는 ‘존재성 재확인’의 필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A'' . 존재성 재확인 필요 인식

‘B. 금상사로의 여정’ 단계에 이르러 형제는 존재성의 재확인을 위한 여행을 시작함으로써 중요한 발견에 이르게 된다. 금상사까지의 여정을 위해 움직일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무능의 존재성을 벗어나 유능의 존재성을 얻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거북이말이 ' 나는압히어두어 엇지가갸니 °
다리뻥이는 「나는엇지거러가갸소 °
썩쟁이말이 「뉘이나를업소새 '
형이막대진걸내쥐고 '
썩소리난대로가새 53)

앞이 보이지 않고 걸을 수 없어서, 혼자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형제였다. 그러한 형제가 업고 업힘으로써, 한 사람은 눈이 되고 한 사람은 다리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다. 각자가 스스로를 구속하는 장애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시선을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라는 의혹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가능한 역할을 찾고 방법을 찾아 실제로 한 걸음을 내딛음으로써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서 미약하게나마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변모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무(全無)함’에 먼저 한 톨이라도 더 해진다면 ‘유(有)함’이 된다. 그들이 힘겹게 내딛은 한 걸음의 가능성은 그들의 존재성 자체를 완전히 변모시킬 수 있는 무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53) 앞의 책, 54면.

- 금상사로의 여행: 이전/이후 = 장애에 대한 집중/장애 외의 부분에 대한 집중, 무능/유능

그러므로 금상사행 길을 나선 거북이와 남생이의 앞에 놓인 삼거리의 형상은 그들이 내딛는 걸음에 따라 변화에 나갈 그들 인생의 다양한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다.

한을에무지계내리벗치와 '
 東쪽은靑大路에푸른질리오 '
 南쪽은赤大路에붉은질리오 '
 西쪽은白大路에흰질리오 54)

제시된 부분에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원리에 바탕을 둔 오방색(五方色)에 따라 동쪽으로는 청색, 남쪽으로는 적색, 서쪽으로 백색의 길이 뻗어있는 형상이 그려지고 있다. 청색이 오행(五行)가운데 목(木)을 의미하며, 생명력을 뜻한다면, 적색은 화(火)에 해당하여 생성과 창조, 정열, 애정, 적극성 등을 나타낸다. 또 백색은 금(金)을 의미하며 결백과 진실, 삶, 순결 등을 뜻한다. 이때 제시된 세 방향을 제외한 북방(北方)에 형제가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방이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전통이 있음을 고려한다면,55) 한 몸이 되어 나아가기 시작한 형제의 앞에 뻗어있는 청색, 적색, 백색의 길은 식물과 같은 삶,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의 삶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형제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형제의 행보에 따라 생명력으로 가득한 삶의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형상이라 볼 수 있겠다.

- 삼거리의 형상: 생명력으로 가득한 삶의 가능성

따라서 거북이와 남생이가 여행의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은, 무능무용의 존재성을 탈피하고 유능유용의 존재성을 획득할 존재적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여행의 방법 발견: 유능유용의 존재적 가능성 발견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능성의 단계일 뿐, 그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서사단락 (9)에 해당하는 ‘생금(生金)의 발견과 포기’의 과정을 통해 아직도 문제적 자기 인식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형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어구에드러가니 '
 蓮塘늪히잇소아 '그늪헤 '
 북개가튼生金이둥 々셔댕긴다 °
 남생이눈이밝어니 '

54) 앞의 책, 55면.

55) 죽음의 세계를 지칭하는 말로 북망산천(北邙山川)이라 이야기되는 전통을 고려한 것이다.

거북이성님 이눔해 ‘
 복개가튼生금이있서니 ‘그것건지자 ‘
 판수성이 ‘우리무슨福趾를가져 ‘
 그것을건지면씩이갓너나 ‘
 본치말고드러가자」 56)

형제가 금상사 어귀에 다다랐을 때, 남생이는 근처의 연못에 떠있는 둥그런 생금(生金)덩이를 발견한다. 그러나 금덩이를 눈앞에 두고도 형제는 ‘건져서 썩힐 일이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그만 금덩이를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만다. 금을 건져 봤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썩힐 것이라며 자기비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능한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을 완전히 깨버리지 못한 형제의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자신들은 생금덩이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인식, 자신들의 존재성이 생금만큼의 가치를 지니지 못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형제가 자신들의 힘으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은 식물과도 같은 죽은 존재성에서 삶의 가능성을 획득해나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한 여정의 막바지에 발견하게 된 생금의 존재는 의미심장하다. ‘생금을 발견했다’는 것의 의미는 그들의 삶이 생금과도 같이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거북이와 남생이는 그들의 여정을 통해, 자신들이 생금과 같은 존재적 가치를 지녔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생금(生金)의 발견: 존재적 가치의 발견

이처럼 형제가 발견한 ‘생금(生金)을’ 그들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시각에는 서사 내적인 근거가 있다. 서사의 초반부에 숙영선비는 아이를 갖기 위해 신묘한 능력이 있는 복술가를 찾아가 문복을 하고, 아이 낳을 방도를 물으며 그 복채로 생금 한 봉을 사용한다.⁵⁷⁾ 그러한 문복의 결과로 거북이와 남생이가 접지된 상황을 고려하면, 그들의 존재적 근원인 금상사의 어귀에서 발견한 생금을 둘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특히, 거북이와 남생이의 탄생과정에는 그들의 존재성이 훼손될만한 금기의 위반이나 과오가 제시되지 않는다.⁵⁸⁾ 그러한 점에서, 비록 둘의 외형은 신체적 장애를

56) 앞의 책, 55면.

57) 나의이宅으로올적에,
 慶尙道아랫역해,
 妙한卜術이잇답디다,
 거기가八字宮습이나무리보오.
 生金一封을가지고,
 大監님이견마라는말을타고,
 종자래기정매들이,
 열청돌이사청광에갓소아, - 앞의 책, 45~46면.

58)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치성의 제물이 모자랐다가 치성을 드린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과오가 제시되는 것과 구분된다.

지닌 모습이지만 그 존재적 가치는 그들을 얻기 위해 사용된 생금의 가치에 온전히 비견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발견된 존재적 가치에 대하여, 형제는 그것을 자신들의 존재성으로 확신할 수 없었다. 일생동안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살던 형제는, 처음으로 스스로 움직여 여행을 시작하며 겨우 약간의 성취를 맛보았을 뿐이다. 스스로가 아주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조금의 확신을 얻었을 뿐, 자신들의 존재가 생금과 같은 가치를 지녔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었다. 따라서 생금을 건져 소유하려 했다가 이내 고개를 젓고 돌아서고 마는 것은, 스스로 발견한 존재적 가치에 대해 의심하고 주저하는 형제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생금(生金)의 포기: 존재적 가치에 대한 확신 미비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형제는 우선 자신들의 존재성 확인을 위한 여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금상사로 들어가게 된다. 이로써 'B. 금상사로의 여정' 순차의 서사가 의미하는 바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금상사로 가기 위한 여행의 방법을 모색하던 거북이와 남생이는 업고 업힘으로써, 처음으로 유능한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의 발견은 금상사 어귀에서 생금을 발견함으로써 절정을 이룬다. 금상사 어귀에 놓여있던 생금이야말로 처음 형제가 접지되도록 한 생금의 가치, 그들의 안에 숨겨져 있는 존재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비록 자신들의 존재적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한 형제는 생금의 획득을 포기하지만, 그들이 금상사로의 여정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를 발견한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B의 서사는 '여행의 방법 발견 및 생금(生金)의 발견'으로 정리될 수 있겠고, 이를 거북이 남생이의 콤플렉스에 대한 것으로 의미화 하자면 '존재적 가치의 발견'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B' . 여행의 방법 발견 및 생금(生金)의 발견

B'' . 존재적 가치의 발견

'C. 금상사에서의 삶' 순차에 이르러 금상사 안으로 들어간 형제는 생불성인(生佛聖人)이 아닌 불목하니와 대면하게 된다. 형제의 여정은 생불성인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그와의 만남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형제가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결부된다고 할 수 있다.

절에드러가니 '불목이넛터서며 '
부체님씨일어니 '부체말이 '
가이들이생기너라고 '
우리절에生金塔을쌌코했서니 '
가이들을남문초당에드려안처라 '

글공부를식혀라 °

한날에白飯을세번씩하여먹여라 59)

생불성인은 형제의 처우를 묻는 불목하니에게 “그 아이들이 생기느라고 우리 절에 생금탑(生金塔)을 쌓았다.”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 형제의 부모가 기차치성을 드릴 당시에 많은 제물을 봉헌했음을 뜻한다면, 형제들을 초당에 머물게 하고, 글공부를 시키며, 좋은 음식을 잘 먹이도록 하는 뜻이 그 되갚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을 탄생시키기 위해 엄청난 제물이 봉헌되었음을 알게 된 형제는, 자신들의 탄생을 위해 투입된 비용만큼이나 자신들의 존재가 가치로울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인식할 기회가 되었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숙영랑·앵연랑 부부가 봉헌한 제물은 생금으로 탑을 쌓을 만큼 많았다고 할 수 없다.⁶⁰⁾ 그렇다면 보다 상징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생불성인이 점지한 형제의 운명 그 자체가 생금탑과 같은 존재적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는 말, 형제의 탄생을 점지되고 그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금탑이 세워지는 과정과 같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절 어귀의 연못에 떠 있는 금을 보고도 형제는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지 못했다. ‘생금 덩어리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인식, 자신들의 존재성에 비해 생금은 과분하다는 인식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생금 덩어리를 애써 외면하고 절에 들어온 형제에게, 생불성인은 그들의 존재성이 생금탑과 같다고 말하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제공한다. 이러한 생불성인의 이야기를 들은 형제는 앞서 지나쳐 온 생금 덩어리를 떠올리며, ‘어쩌면 나의 존재가 생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 것인지 모른다’ 하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생불성인의 확인을 통해서도, 거북이와 남생이는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

○ 생불성인(生佛聖人)의 확인: 존재적 가치의 발견

‘글공부’를 하게 되는 것도, 그러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 특정한 능력을 개발하여 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키워나가고, 지닌 바의 능력으로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인간 삶의 과정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적 가치를 확인하고 세상에 증명하며, 자신의 존재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거북이와 남생이는 능력의 개발과 훈련, 과업의 수행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경험과 준비 없이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 또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부모의 평가와 스스로의 존재인식에 의한 결과이다. 그로 인해 자신들의 삶

59) 앞의 책, 56면.

60) 당시 부부가 봉헌한 제물은 백미 서 말 서 되, 황초 다섯 근, 소(素)초 다섯 근, 대초 다섯 근, 황지 다섯 근, 소지 다섯 근, 대지 다섯 근이었다.

白米를서말서되를써어라,

黃초닷斤, 소초닷斤,

대초닷斤, 黃紙닷斤,

소지닷斤, 大紙닷斤,

열닷斤갓초아가지고, - 앞의 책, 47면.

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삶의 과업 수행으로 인한 성취의 경험도 보유하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자신의 존재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었으며, 어떠한 존재적 가치도 키워나갈 수 없었다.

그러한 거북이와 남생이가 글공부를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유능하고 유용한 존재로서 스스로의 존재적 가치를 긍정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된다. 신체적 장애를 지닌 거북이와 남생이에게 있어서 신체적 능력을 개발하고 신장시키며, 그와 관련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형제에게 글공부는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그들 형제가 지닌 신체적 장애에 구애받지 않는 정신의 영역에 관한 능력을 개발하고 키워나가기 위한 수행의 과정인 것이다. 거북이와 남생이가 자신들로서도 감당이 가능한 삶의 영역을 탐색할 수 있게 되고, 그에 관한 능력을 개발하고 키워나가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존재적 가능성을 찾아갈 방안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심각한 콤플렉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들에게, 정신영역의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이 지닌 유용성은 더욱더 분명하다고 하겠다.

요컨대 거북이와 남생이는 생불성인의 확인을 통해 생금과 비견될 존재적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고, 글공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해나가며 가치 있는 존재로서 자신이 지닌 가능성을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만을 품은 불목하니에게 구박을 당함으로써, 형제는 다시 자기 존재의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 빠진다.

불목이너머甚해서 ' 1
부체물어기썩더려주었다 ° 2
아이들말이 '우리울적에 ' 3
늑해生金이잇섯시니 ' 4
그것을건져가지라 61)

귀한 아이들이니 잘 대우 하라는 생불성인의 말을 통해 거북이와 남생이는 자신들이 생각보다 가치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생불성인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불목하니가 그에 대한 불만으로 아이들을 구박함으로써 아이들이 발견한 가능성은 다시금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찰의 구성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불목하니에게조차 절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음을 인식한 형제는, 자신들이 발견한 연못의 생금덩이를 불목하니에게 양보하기에 이른다. 앞서 말한 대로, 연못에 뜬 생금이 거북이와 남생이 형제의 존재적 가능성을 상징한다면, 불목하니의 구박으로 인해 그것을 양보하려 하는 형제의 모습은 자신들의 존재성을 긍정하기 시작했던 그들이 다시금 그 존재적 가능성을 의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불목하니에 대한 상징적인 이해도 가능하다. 존재적 가능성을 발견한 거북이와 남생이가 그것을 자신의 존재적 가치로 확신하려 할 때, 그러한 확신을 무너뜨리는 불목하니의

61) 앞의 책, 56면.

존재는 그들 자신의 콤플렉스의 형상일 수 있다. 금상사로 들어가기 이전에도 발견한 생금을 그들 자신의 의욕으로 포기하였듯, 금상사의 삶을 통해 다시금 존재적 가능성을 발견한 형제를 가로막는 불목하니의 형상은, 결정적인 인식 극복의 단계를 가로막는 내면의 콤플렉스가 거북이와 남생이를 억압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

○ 불목하니: 억압적 관계 대상/콤플렉스의 형상

그러나 불목하니가 나가 확인한 생금은, 본래의 모습이 아닌 금구렁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이에 거북이와 남생이는 연못의 생금을 재확인 하기에 이른다.

三千중이나가보니 '
 生금이金구리되여서 '
 한닥지한을에붓고 '
 한닥지쟁에붓고 '
 아ㅅ들을더두들겨주었다 °
 아ㅅ들이나가서보니
 亦是本來金이어늘 '
 그금을안고드러왔소아 '
 불전에안고드러오니 '
 절이음슬 ~춤추아 °
 부체를鍍金하고 '절안을鍍金하니 '62)

다시 확인하게 된 ‘생금’은 다른 이들에게는 구렁이로 보일 뿐이었다. 거대하고 흉포한 구렁이의 형상이 하늘과 땅에 닿아있는 모습은, 거북이와 남생이가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포기하는 일이, 그들의 내면세계를 파괴할 위험을 안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리라 본다. 불목하니의 눈, 콤플렉스에 가려진 눈으로는 자신의 진정한 존재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의미가 생금과 금구렁이의 형상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다.

○ 생금(生金): 거북이와 남생이/타인, 생금/구렁이, 존재성의 획득/존재성의 포기

이제 연못의 생금 덩어리가 오로지 자신들의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거북이와 남생이는 그것을 품에 안고 절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자 절이 ‘음슬음슬 춤을 추면서’ 도금이 되고 생불성인 또한 금빛으로 빛나게 된다. 이로써 거북이와 남생이의 존재성에 대해 ‘생금탑을 쌓았다’라고 한 생불성인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다. 결국 ‘C. 금상사에서의 삶’은 생금의 재발견과 획득이라는 사건을 핵심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형제의 존재를 생금에 비유한 생불성인의 말도, 형제가 수행한 글공부의 과정도 형제의 존재적 가치를 상징하는 생금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C의 서사는 ‘생금(生金)의 재발견과 획득’으로, 이를 형제의 콤플렉스 변화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존재적 가치의 확인’이라고 정리될 수 있겠다.

62) 앞의 책, 56~57면.

C . 생금(生金)의 재발견과 획득

C" . 존재적 가치의 확인

거북이와 남생이의 존재적 근원인 금상사의 밖에 놓여있던 생금이 형제의 손으로 금상사 안으로 옮겨짐으로써 절과 생불성인을 도금하였다는 서사는 의미심장하다. 본디 금상사 안에 있어야 할 생금이 제자리를 벗어나 있음으로 해서 그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B. 금상사로의 여정’에서부터 ‘C. 금상사에서의 삶’에 해당하는 서사를 거북이와 남생이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형제의 존재적 가치를 상징하는 생금이, 그들의 내면 공간을 상징하는 금상사 안에 놓이게 됨으로써, 다시 말해 그들이 직접 움직여가며 확인한 존재적 가치가 그들에게 내면 화됨으로써, 그 내면이 금빛으로 빛나게 되는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상사 안쪽으로 생금 덩어리를 안고 들어왔을 때에야 생불성인을 만나게 되는 상황도 상징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형제가 금덩이를 안고 금상사를 들어왔을 때 비로소 생불성인이 도금되었다는 것은, 형제가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를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생불성인의 존재도 빛을 발하게 됨을 말한다. 그렇다면 금상사의 안에 거하고 있는 생불성인의 존재 그 자체가 거북이와 남생이가 내면적으로 획득해야 할 완전한 존재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금상사(金祥寺): 외부의 세계/내면의 세계, 존재적 근원/정신적 근원
- 생금(生金)의 위치: 금상사 밖/금상사 안, 존재적 가치 불신/존재적 가치 확신
- 생금(生金): 거북이와 남생이/타인, 생금/구렁이, 존재성의 획득/존재성의 포기
- 생불성인(生佛聖人): 외부의 신성 존재/내면적으로 획득해야 할 완전한 존재상

따라서 ‘D. 장애의 치유와 현실 복귀’ 순차에 이르러, 거북이와 남생이가 자신들이 획득해야 할 존재상과 대면함으로써 그들이 지닌 장애가 치유되는 상황도 상징적으로 이해 가능하다. ‘장애의 치유’라는 것을 실제로 눈을 뜨거나 등과 다리가 펴지는 기적과도 같은 치유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거북이와 남생이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체적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낸 것일 수 있다. 신체적 장애는 유지되더라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없는 상태로의 전환이다. 이는 실제적인 장애의 치유라기보다 장애에 대한 인식상의 극복이라고 봄이 옳겠다. 그들 형제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능유용의 존재’로서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지니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러한 존재성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살게 되었다면, 세상 속에서 그들과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의 빛을 비추었을 것을 의심할 수 없다. 그야말로 ‘인간을 지도하는 생불성인’의 역할을 신체적 장애에 굴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를 극복한 거북이와 남생이는 인간세상으로 돌아가 여든한 살까지 장수하게

된다. 여기서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자신이 획득한 생불성인으로서의 존재상을 내보이며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장애에 구애됨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내보임으로써 신체적 장애의 문제에 대한 극복한 화신으로서, ‘E. 혼수성인으로서의 좌정’ 순차에 이르러 신직에 좌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⁶³⁾ 따라서 D의 서사는 ‘생불성인과의 대면을 통한 완전한 존재상 획득’, 콤플렉스의 측면에서는 ‘존재적 확신을 통한 장애 극복’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D' . 생불성인(生佛聖人)과의 대면을 통한 완전한 존재상 획득

D'' . 존재적 확신을 통한 장애 극복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이르게 되는 ‘E. 혼수성인으로서의 좌정’ 순차는, ‘장애 극복의 화신으로 자리매김’, 콤플렉스의 측면에서는 ‘콤플렉스의 극복’이라고 정리될 수 있겠다.

E' . 장애 극복의 화신으로 자리매김

E'' . 콤플렉스의 극복

지금까지 거북이와 남생이가 금상사로의 여행을 결심한 이후로 부터의 서사를 핵심적인 국면들로 나누어 각 순차의 서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다. 그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A' A'' . 존재성에 대한 의혹과 확인을 위한 여행: 존재성 재확인 필요 인식

B' B'' . 여행의 방법 발견 및 생금의 발견: 존재적 가치의 발견

C' C'' . 생금의 재발견과 획득: 존재적 가치의 확인

D' D'' . 생불성인과의 대면을 통한 완전한 존재상 획득: 존재적 확신을 통한 장애 극복

E' E'' . 장애 극복의 화신으로 자리매김: 콤플렉스의 극복

이 중 콤플렉스의 치유 과정을 의미하는 항목을 추려 그 순차를 다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제시될 수 있다.

A'' . 존재성 재확인 필요 인식

B'' . 존재적 가치의 발견

C'' . 존재적 가치의 확인

D'' . 존재적 확신을 통한 장애 극복

E'' . 콤플렉스의 극복

63) 신호림은 거북이와 남생이의 신직 좌정이, 서사 내적 개연성 없이 제시되어 <속영랑.앵연랑신가>가 타 지역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전승력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한다(신호림, 앞의 논문, 249~259면). 그러나 콤플렉스의 극복과정으로서 거북이와 남생이의 서사를 재조명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서사가 그들이 좌정하게 된 신직에 연결될 개연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데석님 청배>나 <혼쉬곳>의 후반부 서사에서는 이러한 내적 개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나, 적어도 <속영랑.앵연랑신가>의 서사는, 신화 서사로서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다.

부모로부터 규정된 무능의 존재상을 자신의 존재상으로 수용함으로써, 거북이와 남생이는 존재유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에 A[~]의 단계에서, 형제는 자신들의 존재성이 과연 부모의 평가 그대로인지 ‘유능의 존재’로서의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를 느낀다. 그러써 자신들의 존재적 근원, 혹은 정신적 근원인 금상사로의 여행을 결심하게 된다.

B[~]의 단계를 통해 거북이와 남생이는 ‘유능의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각자가 가능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함께 금상사로의 여행, 혹은 존재적 가능성을 찾는 내면으로의 여행을 수행할 방법을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그러한 여행의 가운데, 거북이와 남생이는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상징하는 생금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확신할 수 없는 형제는 그 생금을 포기하고 만다.

이제 C[~]단계에 이르러 거북이와 남생이는 금상사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는 곧 그들의 내면 탐색이 정신적 근원에까지 접근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곳에는 형제를 생금의 가치에 비유하는 생불성인의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그들의 존재적 가치를 의심케 하는 불목하니의 억압도 존재한다. 이때 불목하니의 존재는 그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콤플렉스의 형상에 대한 상징일 수 있다. 형제는 금상사에서 정신적인 수양을 계속해가며, 생불성인의 목소리와 불목하니의 억압 사이에서 갈등한다. 이처럼 자신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확신과 의혹 사이에서 번민하던 형제는 불목하니의 눈으로는 생금 덩어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는 콤플렉스로 가려진 눈이 아닌 온전한 성찰의 시각으로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확인하였음을 뜻한다. 그리하여 형제는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를 상징하는 생금을, 그들의 존재적 근원이자 정신적 근원인 금상사의 안으로 옮겨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써 금상사와 생불성인, 형제의 내면적 근원공간, 형제가 획득해야 할 완전한 존재상이 생금의 빛으로 빛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써 D[~]단계에 이르러, 거북이와 남생이는 생불성인과 대면하게 되고, 완전한 존재상을 획득하기에 이른다. 신체적 장애를 지닌 그들이 존재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통해 구애됨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는 곧 인간을 지도하는 생불성인의 모습인 것이다. 거북이와 남생이가 그러한 존재적 확신을 지니고 현실로 복귀하여 생을 영위함으로써, 그들은 E[~]단계에 이르러 장애 극복의 화신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곧 거북이 남생이의 콤플렉스가 완전히 극복되었음을 의미한다.

제시된 단계 중, 거북이 남생이의 콤플렉스 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A[~]와 C[~]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A[~]단계의 콤플렉스 구조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전술한 바, 거북이·남생이의 자기 존재 인식이, 관계의 대상인 부모의 부정적 평가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그러한 자기 존재 인식을 외부 세계에 투사함으로써 다시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악순환적 콤플렉스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콤플렉스의 악순환이 거북이·남생이로 하여금 존재적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도록 만들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거북이·남생이는 그 문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성을 재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여기에서 그들의 콤플렉스를 구축하는 연쇄적 순환의 첫 고리가 끊어진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아이’라는 부모의 평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첫

번째 자리에서 물러나고, 형제는 스스로의 존재성을 재평가할 준거를 찾을 방법을 강구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기차치성을 받아 그들의 탄생을 점지한 금상사의 생불성인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존재성을 재확인 할 새로운 준거를 얻고자 한 것이다. 이때 그들을 무능무용의 존재로 주저앉게 만들었던 자기 인식의 절대적 전제가 영향력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하여 형제는 미력하나마 그들로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 생불성인을 만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무능의 존재에서 유능의 존재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유능한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찾은 형제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를 조금씩 확인해나간다. 그러한 확인의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형제는 결국 ‘생금’으로 상징되는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C⁺단계에 이르러 생금의 존재적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게 된다. A⁺단계를 통해 끊어진 평가수용 연쇄의 첫 번째 고리로 인해 자기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 준거가 필요했던 거북이와 남생이는, 이제 생금과 같은 존재적 가치를 평가수용 연쇄의 첫 번째 고리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써 외부의 세계로 투사되는 형제의 존재성도 생금의 가치를 띠게 되고, 그로 인한 외부의 세계의 평가는 다시 형제에게로 수용되어 장애 극복의 화신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4. 한국 신화의 서사체계를 통한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의 원리

앞에서는 <숙영랑·앵연랑신가>,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통하여, 현대인을 괴롭히는 여러 콤플렉스의 문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각되는 세 콤플렉스의 유형에 대한 치유와 극복의 실마리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적 결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의 관계가 지닌 가치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편견의 문제에 대해서는 편견의 논리를 벗어나 자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콤플렉스를 치유하고 극복해나가는 서사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로써 거북이·남생이의 서사, 할락궁이의 서사, 자청비의 서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각 경우에 해당하는 콤플렉스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이 스스로의 콤플렉스를 극복해나갈 방향은 지시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상 현실의 삶 속에서 인간의 정신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콤플렉스의 양상이란, 개개인의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앞에 제시된 세 가지의 길이 그 중 많은 경우의 수를 포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타의 콤플렉스 문제, 혹은 근본적인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해결의 지점이 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분석된 세 가지 신화 서사를 통해서, 콤플렉스의 치유와 극복에 관한 서사적 일반원리를 도출해 볼 수는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제 세 유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콤플렉스 일반의 문제에 대하여 한국의 신화 서사가 담보할 수 있는 치유와 극복의 원리를 밝혀보도록 한다. 이는 말하자면 콤플렉스 일반의 문제를 감당하고 풀어낼 수 있는 거시적 방법론의 구상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러한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숙영랑·앵연랑신가>,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의 주인공 거북이·남생이, 할락궁이, 자청비의 서사가 지닌 공통요소이다. 세 주인공의 서사에서 핵심적인 대립을 이루는 것은 언제나 주인공이 놓인 부정적 ‘현실’과 그에 대비되는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이 놓인 부정적 현실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자기 판단 기재를 내면화하도록 하고, 그에 대비되는 이상적인 삶 속에서의 이상적 존재상을 쫓도록 추동한다.

- 거북이·남생이(신체적 열등감의 문제): 현실(신체장애)/이상(장애의 극복)
- 할락궁이(관계적 결함의 문제): 현실(아버지의 부재)/이상(온전한 관계로의 회복)
- 자청비(사회적 편견의 문제): 현실(차별의 논리)/이상(차별의 논리 극복)

각각의 경우에 부정적 현실이 주인공의 콤플렉스로 구조화 되는 과정이나, 이상적 삶과 이상적 존재상의 획득을 통해 콤플렉스가 극복되는 세부적인 과정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현실/이상’의 대립구조가 핵심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각 신화 주인공들의 서사는 ‘현실’과 ‘이상’이라는 대립적인 두 가지의 가치를 중심축으로 하여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엘리아데는 ‘성(聖, sacré)과 속(俗, profane)’을 인간의 실존적 본질을 이루는 두 가지의 경험 양식으로 보았다. 성스러움으로의 이행은 세속적 행위의 반복을 통해 가능하며, 성스러움에 대한 회구가 없는 세속의 삶도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성과 속은 별도로 존재하는 둘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다른 두 측면, 인간을 둘러싼 온 세계 안에 합일 된 두 극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성과 속이라는 두 가지 대립적이고 극단적 양태가 하나의 사물, 하나의 세계, 하나의 인간 존재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대극의 합일(coincidentia oppositorum)’구조라 한다.⁶⁴⁾ 그에 따르면 인간은 종교제의나 신화와 같은 성현(聖現, hiérophanie)을 통하여 세속적 시공간의 작용을 멈추고, 성스러운 시공간을 경험함으로써 ‘원형(元型, archétype)’을 발견하게 된다.⁶⁵⁾ 이때 신화의 역할은 세속적 인간을 성스러운 시공간으로 인도하는 매개체이자,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성스러운 시공간 그 자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종교사가의 입장에서 본 신화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지만, 이를 신화 서사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인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신화의 서사 그 자체도 ‘성’과 ‘속’이 하나의 서사 안에 포괄되어 있는 대극의 합일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바, 세 신화 주인공의 서사에 핵심을 이루는 ‘현실/이상’의 대립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실’과 ‘이상’의 대립구조가 신화 주인공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화 서사의 바탕에 ‘속’에 해당하는 ‘현실의 서사’와, ‘성’에 해당하는 ‘이상의 서사’가 대극의 합일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신화의 이상이 곧 신성임을 생각하면 ‘이상의 서사’는 곧 ‘신성의 서사’라는 말이 된

64) Mircea Eliade, *Le sacré et le profane*, Paris: Gallimard, 2003, p.13.

65) Ibid, p.91~122.

다. 따라서 신화의 서사체계를 이루는 ‘현실의 서사’와 ‘신성의 서사’, 양자의 대립과 합일이 곧 신화 서사를 이루는 핵심 원리가 될 것이다.

○ 신화의 서사: 현실의 서사/신성의 서사

그렇다면 신화 서사의 바탕을 이루는 ‘현실의 서사’와 ‘신성의 서사’가 대립하고 합일하는 과정이 신화 서사의 순차구조를 이루게 될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한 점은 살펴 본 세 가지 사례, <숙영랑·앵연랑신가>,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세 신화의 주인공들은 그 자신의 심리적 문제, 콤플렉스의 작용으로 인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존재적 위기의 상황에 봉착한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적 위기의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떠나가도록 만든다.

A. 현실에서 떠남

- 거북이·남생이: 무능무용의 존재성에 의한 생계 위협 -> 현실에서 떠나감⁶⁶⁾
- 할락궁이: 자기 이상화를 통한 현실배제 -> 현실(어머니의 공간)에서 떠나감
- 자청비: 차별의 논리로 인한 갈등과 관계의 단절 -> 현실(부모의 집)에서 축출

기실 ‘현실’에서 떠난다는 그 자체가 곧 ‘신성의 서사’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기 자신을 한계적 존재로 인식하였던 것이 그들의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 거북이·남생이의 경우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떠남 그 자체가 ‘신성의 서사’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듯하다. 그러나 할락궁이의 콤플렉스는 과도한 이상 추구에 의한 현실 배제, 즉 신성의 추구 그 자체가 문제시 된다. 자청비의 경우에도 자신이 열등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존재증명의 이상 추구, 신성의 추구 그 자체가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을 떠나 ‘신성’한 공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체가 ‘신성의 서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만 ‘현실’에서 떠나 ‘신성’의 공간에 진입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자기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심리적 문제의 해결이 곧 완전한 존재성의 발현으로 이루어지는 바, 그 실마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곧 ‘신성의 발견’을 의미한다.

B. 신성의 발견

- 거북이·남생이
 - 길 위: 여행의 방법 발견(유능유용의 존재적 가능성 발견)
 - 금상사 인근 연못: 생금(生金) 발견(존재적 가치의 발견)
 - 금상사: 생불성인(生佛聖人)의 확인(존재적 가치의 발견)

66) 거북이·남생이의 경우, 어디에서 떠나갔는지 구체적인 장소가 제시되지는 않으나 그들이 몸을 일으켜 ‘금상사’라는 신성 공간으로 떠날 때의 바로 그 자리를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할락궁이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 세 물 발견(현실의 관계가 지닌 가치 발견)

서천꽃밭: 아버지를 통한 세 물 상징 이해(현실의 관계가 지닌 가치 이해)

○ 자청비

밭: 정수남의 일아래의 존재가 지닌 가치 발견

서천꽃밭: 정수남을 살림아래의 존재가 지닌 가치의 인정과 포용

청태산 마고할멈의 집: 물 심부름, 식사 준비, 베 짜기(자신의 존재가치 발견)

서천꽃밭: 문도령을 살림(위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포용)

위와 같은 발견의 과정을 통해, 그들은 신성을 획득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발견한 신성이란 것이, 그들이 진입한 서천꽃밭이나 천상 등 신성의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신성의 공간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본래의 자신, 본래의 자기 관계에 깃들어 있었던 신성에 대한 깨달음일 뿐이다. 생금(生金)덩어리를 봉헌하고 짐지되었던 거북이·남생이, 신성한 존재의 아들이었던 할락궁이, 신성한 계보를 이으며 태어난 자청비 등, 그들은 본래 그 안에 신성을 지닌 존재들이었다. 다만 부정적인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의 신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랬던 그들이 신성공간으로의 여행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지닌 신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신성공간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지면서 그 신성을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신성을 획득하게 된다. 결국 신성공간의 상징은, ‘신성 획득의 공간’인 셈이다.

C. 신성 획득

○ 거북이·남생이: 금상사로 생금을 안고 들어 감존재적 가치의 획득)

○ 할락궁이: 서천꽃밭에서 주화(呪化) 획득(현실의 관계 기반 회복을 위한 힘의 획득)

○ 자청비: 문도령을 말쑤떨아기에게 보냄(자신의 존재가치 인정)

거북이·남생이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생금을 품에 끌어안음으로써, 할락궁이는 장자를 징치하고 어머니를 되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의 꽃을 손에 줍으로써, 자청비는 스스로 열등하게 여겼던 본래적 자기 존재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문도령을 말쑤떨아기에게 보내 자신이 사용하던 남성적 형상을 벗어던짐으로써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 본래적 신성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중요한 것은 본래적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신성의 획득’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신성의 발견과 획득의 서사가 별도로 준비된 순차에 의해 실현된다는 점이 그러한 점을 분명히 말해준다. 이는 스스로를 한계 짓고, 자신의 신성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신성은 진정한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원리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게 발견된 자신의 신성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주인공들은, 신성의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공간에 복귀하여 현실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신직에 좌정한다.

D. 현실 복귀 -> E. 신직 좌정

- 거북이·남생이: 인간 세계로 돌아가 장수 -> 혼수성인으로 좌정
- 할락궁이: 돌아가 장자를 징치하고 어머니를 희생 -> 꽃감관 승계
- 자청비: 지상으로 내려가 정수남과 함께 농사를 지음 -> 중세경으로 좌정

주인공의 현실 복귀가 이루어지고 현실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거나 현실의 삶을 충분히 살아낸 이후에 신으로 좌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신화가 그 서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성을 발견하고 획득하는 것보다, 그렇게 획득된 신성을 통해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는 신화의 서사가 저 너머 신성공간에 대한 회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온전한 인간 삶을 위한 깨달음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로써 주인공의 ‘현실의 서사’는 곧 ‘신성의 서사’가 된다. ‘신성의 서사’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의 서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서사’를 온전히 함으로써 ‘신성의 서사’로만 들어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신성을 발현하며, 현실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한국의 신화 서사가 내포한 대극 합일의 원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신화가 말하는 ‘신성’이란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 존재가 자신이 놓인 현실의 문제들을 온전히 풀어낼 수 있는 정신적 깨달음, 신성한 자기 존재성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숙영랑·앵연랑신가>,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이 스스로의 심리적 콤플렉스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서사의 체계를 되짚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 신화의 서사체계

- 대립구조: 현실/이상, 현실의 서사/신성의 서사
- 순차구조: 현실을 떠남 -> 신성의 발견 -> 신성 획득 -> 현실 복귀 -> 신직 좌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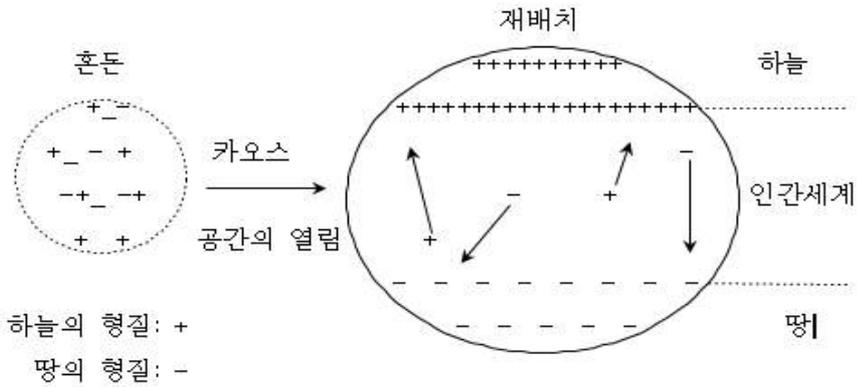
이와 같은 서사 체계를 통하여 전개되는 신화의 서사, 현실과 신성의 공간을 중횡하면서 신성을 발견하고 획득하여 주인공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한국 신화의 서사가 추구하는 대극 합일의 원리, ‘성’과 ‘속’, ‘현실의 서사’와 ‘신성의 서사’의 합일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현실공간/신성공간’, ‘현실의 서사/신성의 서사’가 한국의 신화 서사에 구현되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줄고 「서사무가를 통해 본 한국 신화의 공간 인식체계 연구」를 통하여, 소략하게나마 성속복합계(聖俗複合界)로서의 한국 신화 공간의 특성을 고찰한 바 있다.⁶⁷⁾ 당시에는 한국 창세신화의 천지 분화 원리와, 하늘과 땅의 속성을 동시에 타고나 중간 매개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⁶⁸⁾ 이때 중요한 것은 천지 분화의 원리가 ‘분리’가 아닌 ‘열림’에 의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천/지’의 공

67) 조흥윤, 앞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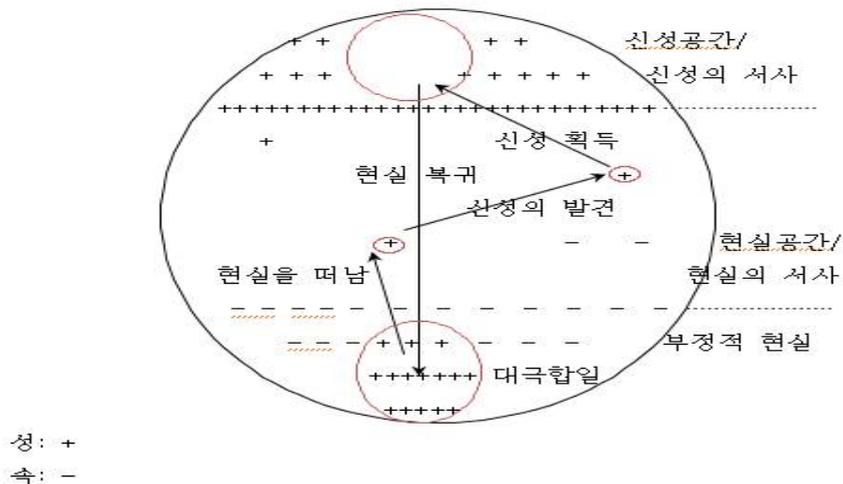
68) 당시의 논의에서 ‘하늘’과 ‘땅’은, ‘천/지’, ‘성/속’의 대립을 상징하는 공간적 대극을 이루는 것이었다.

간이 하나의 계(界)안에 놓여있는 신화 공간의 성격이 구명된 것이다.



<그림 4-1> 공간의 열림에 의한 천지의 재배치⁶⁹⁾

이러한 신화 공간 인식의 문제는,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한국 신화 서사의 원리와 연관됨으로써 그 의미가 재고될 수 있을 듯하다. ‘성/속’의 구분이 없는 신화 공간에 대한 인식이, ‘현실의 서사/신성의 서사’의 합일 원리와 연결 될 수 있는 지점이 보이게 된 것이다. 지상적 현실공간과 천상적 신성공간이 하나의 계에 배치되었듯, 하나의 신화 서사 속에 ‘현실의 서사’와 ‘신성의 서사’가 동시에 배치 될 수 있는 것이 한국 신화 서사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의 그림을 약간 변형함으로써 확실히 제시될 수 있을 듯하다.



<그림 4-1> 한국 신화 서사의 원리

69) 앞의 논문, 21면.

거북이·남생이, 활락궁이, 자청비의 서사는, 나뉜 듯 하나인 공간, 성속복합계 속에 구현된다. 그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한국 신화의 서사는, 부정적 현실의 서사와, 완전한 신성의 서사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현실의 서사만이 진행될 때에 부정적 현실을 살아가는 신화의 주인공들은 신화 세계의 가장 낮은 곳에 억눌려 자신의 세계 안에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는 신성을 발견하지 못한다. 본고의 방향성에서 이야기하자면 콤플렉스로 인해 그 눈이 가려져 부정적인 현실의 공간만이 인식되고, 이미 자신 안에 자리하고 있는 존재적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자신의 부정적 현실이 완전한 과국으로 차단됨으로써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자신을 둘러싼 가장 밑바닥의 현실공간을 벗어나게 된다. 콤플렉스로 인한 문제가 주인공의 존재적 위기로 이어지고, 다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순간이다.

현실을 떠나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간 주인공은 자신의 세계 이곳저곳에 놓인 신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 신성은 자신의 현실적 관계를 상징할 수도 있고, 생금(生金)과 같은 자기 존재적 가능성을 상징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거북이·남생이, 활락궁이, 자청비가 그러했듯 그 신성이 이미 자신의 현실, 자신의 존재, 자신의 현실적 관계, 자신의 세계 안에 깃들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신화 주인공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신성을 발견해 나갈수록 주인공은 현실공간을 벗어나 신성공간에 다가서게 되고, 주인공의 서사도 현실의 서사에서 신성의 서사로 변해간다. 그러다가 신성의 공간, 자기 안에 있던 존재적 힘의 근원, 자기 세계의 가장 윗자리에 올라감으로써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발견한 신성을 자신의 것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콤플렉스의 존재였던 주인공이 자신이 발견한 해결의 가능성들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처럼 그 존재 안에 신성을 품은 주인공들은, 다시 원래의 자기 현실공간, 가장 낮은 그 자리로 돌아와 자신이 품은 신성으로서 그 공간을 변화시킨다. 그럼으로써 전체 신화 서사의 공간 속에 구현된 대극 합일의 원리는 신화의 주인공 그 자신의 존재성을 통하여, 주인공이 돌아감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떠나온 현실 자리를 통하여 ‘현실공간/신성공간’, ‘현실/이상’, ‘현실의 서사/신성의 서사’ 모두가 대극합일의 원리로 관통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신화는 말한다. 자신의 세계, 자기의 존재 안에 감추어져있는 신성을 발견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신성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이다. ‘네 안에 신성을 발현하는 순간 너의 삶이 곧 천상의 삶이다’라고 말이다.⁷⁰⁾

70) “인간은 천상적 형질의 신성성에 기원한 존재이며, 그 안에 천상과 지상의 형질을 동시에 지닌 천상적 존재이자 지상적 존재이다. 그것은 곧 인간이 신과 같은 속성을 지니지만, 신이라 할 수도 있고 인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존재임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 신성계와 현실계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신과 인간은 둘 모두 ‘신성’이라는 속성을 지니지만, 그러한 ‘신성’이 발현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 신과 인간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존재 태를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과 인간의 차이는 그대로 신성계와 현실계의 차이로 적용 될 수 있다. 신성계와 현실계의 속성적 차이는 없으나, 그 질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 것. 현실계가 가장 이상화된 모습이 바로 신성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의 논문 33면. 이에 대해서는 신동훈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한국 신화의 원형적인 신관념은 창세신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창세신화는 서로 혼합 상태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갈라지면서 인간세상이 열렸다고 하거니와 인간 세상이 본래 하늘과 땅의 신성과 연속된 세계임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창세신화는 인간이 하늘로부터 지상에 내려와 성장한 존재라고 함으로써, 인간이 그 안에 하늘의 신성을 내재한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다. 실제로 창세신화 속의 인간은 신과의 차별성보다는

5. 현실의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에 대한 한국 신화 서사의 적용

지금까지 현대인의 정신적 문제로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콤플렉스의 문제에 관하여, 그 극복과 치유를 위한 신화 연구의 방법을 모색해보았다. 그 결과 콤플렉스의 해결이라는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는 한국 신화의 서사체계와 그 원리를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그러한 신화의 서사체계와 원리가 현실의 콤플렉스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서울·경기지역 대학생들의 콤플렉스 사례 중 거북이·남생이와 같은 지체장애의 문제를 안고 있는 L군의 사례⁷¹⁾를 중심으로 그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보도록 한다.

사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자면, L군은 초등학교시절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축구부 활동을 하며 축구선수가 될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러한 중에 왼쪽 다리에 골육종(Osteosarcoma), 일명 ‘뼈암’이 발생함으로써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지체장애와 함께 축구선수로서의 꿈을 접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 푸른 잔디 위를 질주할 꿈을 꾸던 소년이 일상의 보행마저 부담스러운 장애를 안게 됨으로써 받았던 절망감의 크기는 감히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거북이·남생이의 경우처럼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경우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던 중 직면하게 된 장애의 문제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을 수 있다.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적 열등감을 지적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축구가 전부였던 L군에게 있어, 자신을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만든 장애는, 스스로 ‘나는 이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거북이·남생이가 무능력한 존재라는 부모의 판단을 자신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내면화하였다면, L군의 경우에는 꿈을 이룰 수 없게 된 절망감에 스스로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규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해 ‘무능력한 존재’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은 차이가 없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이후의 행보가 유사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운동부원으로서 학업과는 거리가 먼 일상을 살았던 L군은, 어쩔 수 없이 보통의 학생들처럼 학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만 했다. 아무런 기초 없이 중학교 2학년 과정 교과를 따라가기란 너무나 막막한 일이었다고 한다. 꿈꾸던 미래를 잃어버리고 뒤바뀐 운명을 채 받아들이기도 전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쳐진 학업을 따라가야만 했던 상황이 숨 막히도록 버겁고 절망스러웠노라 이야기하였다. 뒤쳐진 학업을 보강하기 위해 L군은 전 과목에 걸쳐 학원에 등록

동질성이 더 두드러진다.”. 신동훈, 「무속신화를 통해 본 한국적 신 개념의 단면」, 『비교민속학』 제43집, 2010, 349면 초록 인용.

71) 본 연구에 사례를 인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었다. 익명으로 제시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지체장애의 문제를 안고 있는 대부분의 사례자들이 인용을 거부하였고, 인용된 L군의 경우만이 유일하게 인용을 허락해주었다. L군의 사례는 매우 피상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인용 자료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북이·남생이의 서사와 비교하는 과정임을 감안하여 지체장애 사례는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인용을 결정하고, 상담을 통해 알게 된 L군의 정보를 더 제공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리를 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학원에 다니는 일은 정말로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었다. 절망감에 젖어있는 자신에게, “남은 길은 공부뿐이다.”,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밖으로 몰아세우는 어머니가 너무나 미웠다고 한다. 자신은 장애인이 되었는데, 그 절망감을 이해받지 못하는 것만 같아 원망스러웠다고 한다. 자연히 학원에 나가서도 공부에는 집중하지 못했다. 그저 감당하기 힘든 책무였을 뿐이다.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기에 그러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거북이와 남생이가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L군도 아무 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밖으로 내몰리면서도 무능력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절망감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을 뿐이다. 자연히 공부는 뒷전이 되었고, 자신의 장애를 사람들에게 내보이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자극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L군의 당시 심정은, 그저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지 않은 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량을 선보여야 하는 축구선수를 꿈꾸었다는 점에서,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내보여야 하는 일이 더 고통스러웠으리라 이해할 수 있다. 스스로가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고 그에 따라 무기력한 모습을 투사했기에, 교사들도 L군을 장애를 입은 무기력한 아이로 여기고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던 상황이다. 거북이와 남생이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며 무능력한 존재성을 투사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무능력한 존재로 받아들여졌듯이 말이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권유로 수학 학원을 옮기게 되었던 일이 L군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되었다. 만약 ‘수학’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절망한 채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기존의 학원 공부에서 별반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L군은, 새로 옮긴 학원에서 수학 문제를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내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수학 문제를 푸는 새로운 방식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이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놀이인 것처럼 여겨졌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수수께끼 놀이에 상당히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거북이와 남생이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몰려서야 비로소 부정적 현실에 웅크려 있던 자세를 버리고 움직여 나갈 방향을 찾게 된다. 그에 비하면 그러한 극단적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기 자신은 주저 앉아있고 싶어 했을지 모른다. 다만 그의 어머니가 L군이 부정적 현실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던 것이, 거북이·남생이와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세세한 과정에는 차이가 있으나, 결국 두 경우 모두 부정적 현실에 웅크려 있던 것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삶을 이어갈 방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거북이·남생이가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표상하는 생금(生金)을 발견하였듯이, L군은 ‘수학’이라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전히 다른 과목의 공부는 지지부진 하였지만, 수학만큼은 누구보다 즐겁게,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었고, 그만큼 수학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금상사에 들어간 거북이와 남생이가 “생금같은 아이들이다”라는 생불성인의 말을 듣고 공부에 임했던 것처럼, “수학을 통해서라면 너는 누구보다 유능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동기 유발은 L군이 수학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몇 차례 수학경시대회에 입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입학사정관 전형 등을 통해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수학교육과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도 L군은 수학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일찌감치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본격적인 수학 연구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연못의 생금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기 위한 거북이와 남생이의 공부과정이 있었듯, L군도 수학 연구자로서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금상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상사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거북이와 남생이를 억눌렀던 불목하니처럼, 여전히 그가 지닌 지체장애는 그의 콤플렉스로 남아 있다. 그러나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는 그에게 지체장애는 더 이상 예전의 절망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 수학 연구자로서 온전히 자신의 존재를 세우고, 자신만의 ‘생금(生金)’을 온전히 품속에 끌어안게 될 미래에는 그러한 콤플렉스도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게 한다.

제시된 사례는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로서, 그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이나 불편의 심각성도 다르고, 그 세부적인 맥락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콤플렉스에 얽매이는 양상이나 그로인한 고통의 양상, 그 해결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거북이·남생이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해당 사례가 콤플렉스의 치유와 극복의 단계에 놓여있는 서사라는 점을 볼 때, 그 유사성은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에 대해 거북이·남생이 서사의 적용이 적합한 치유와 극복의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원본 목차

1. 서론
 - 1.1. 문제제기
 - 1.2. 연구사 검토
 - 1.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2. 신화의 서사를 통한 콤플렉스 연구의 가능성
 - 2.1. 신화에 투영된 콤플렉스의 형상
 - 2.2. 한국 신화의 서사를 통한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의 실마리
 - 2.3. 콤플렉스의 구조와 그 변화 과정에 대한 서사적 분석의 방법론

3. 콤플렉스 서사로서의 한국 신화 분석
 - 3.1.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 <숙영랑·앵연랑신가(淑英郎·鶯蓮娘神歌)>
 - 3.1.1. 거북이·남생이의 콤플렉스 구조 - 타인에 의해 규정된 존재성의 수용
 - 3.1.2. 거북이·남생이의 콤플렉스 극복 과정 - 자신의 눈으로 발견하고 획득한 자기 존재의 가치
 - 3.2. 관계적 결핍의 문제, <이공본풀이>
 - 3.2.1. 할락궁이의 콤플렉스 구조 - 관계적 결핍을 채우기 위한 이상적 관계에의 환상
 - 3.2.2. 할락궁이의 콤플렉스 극복 과정 - 현실의 관계가 지닌 가치의 재발견
 - 3.3. 사회적 편견의 문제, <세경본풀이>
 - 3.3.1. 자청비의 콤플렉스 구조 - 편견의 논리로 편견에 맞서는 존재 증명의 몸부림
 - 3.3.2. 자청비의 콤플렉스 극복 과정 - 진정한 자기 되기를 통한 존재성의 실현

4. 한국 신화의 서사체계를 통한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의 원리
 - 4.1. 콤플렉스 극복 서사에 나타나는 한국 신화의 서사체계
 - <숙영랑·앵연랑신가>,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의 경우
 - 4.2. 한국 신화의 서사적 원리와 원형적 인간 존재의 가치
 - <원천강본풀이>, <마리데기>를 중심으로

5. 현실의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에 대한 한국 신화 서사의 적용
 - 서울·경기 지역 대학생 집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 5.1. 신체적 열등감, 관계적 결핍, 사회적 편견의 문제
 - 5.2. 콤플렉스 일반의 문제에 대한 한국 신화 서사의 적용 가능성

6. 결론